

제2088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정유경의 한방 화장품 '연작', '설화수·후' 넘을까 13



"사람이 두산의 미래" 박용곤 명예회장 별세 21



코스피 (4일) 2190.66 (-4.78P)
코스닥 748.07 (+16.82P)
환율 (달러당 원화) 1124.90 (+0.20원)
금리 (국고채 3년물) 1.834% (+0.021P)

미세먼지에 뺏긴 봄 "대책없나" 불안 국민

최악의 미세먼지가 열흘 넘게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나올 연속 시행했지만 개선 조짐조차 보이지 않자 국민의 불만이 증폭된 상황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아주 나쁨' 수준인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이어 5일에도 발령이 예고됐다. 수도권에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대책은 이제 전부다. 속수무책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국가인 중국에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한계
'속수무책' 정부, 中에 항의 못해
靑 청원글 일주일간 650여건

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마스크와 공기정정기가 필수품이 되는 등 일상생활마저 바뀌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요동치고 있다. 일주일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만 650여 건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지키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부터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인하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가격이 개당 2000~4000원"이라며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청원인은 "신선한 공기는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재"라며 공기정정기 가격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30% 줄인다고 말하지 않으셨나. 중국에 할 말은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라고 반문한 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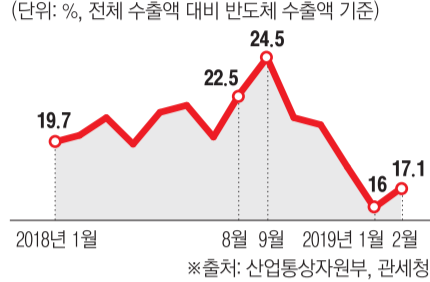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정부, 수출기업 '돈맥경화' 뚫는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

금융지원 규모 235兆로 늘리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현금 지원
성운모 "수출 마케팅 강화 역점"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정부가 수출 제고에 '올인'한다. 금융지원을 235조 원으로 늘리고 수출 마케팅 대상과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4일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에 비해 15조3000억 원을 증액한 235조1500억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당초 12조3000억 원을 증액

하기로 했으나 수출 감소가 3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3조 원을 추가 투입해 기업들의 '돈줄'을 풀어주기란 것이다.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계약-제작-선적-결제 등 수출 단계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 7000억 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또 수출 선적 이후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4월에 신설한다. 특히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상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도 마련한다. 이 특별보증제는 2분기에 1000억 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 뒤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류가 확산된 국가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등과 연계한 수출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에 지난해보다 5.8%(182억 원) 증액한 352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60%를 집행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2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물, 플랜트·해외건설 등 6대 신(新)수출성장동력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분야별로 세부 육성 대책을 잇따라 내놓기로 했다.

성운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 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국내 첫 영리병원 사실상 무산

허가 3개월 지났지만 개원 못해... 제주도, 취소 절차 돌입

녹지병원 '내국인 제한 삭제' 행정소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병원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단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해선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 녹지병원

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개원 기한인 이날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과 더불어 녹지병원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지난해 27일 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를 교부하는 등 청문 실시를 위한 본격적 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에는 제주도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 날 현장점검차 병원을 방문한 제주도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며 "녹지병원 측도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세종=김지영 기자 iye@



9개월 만에 NSC 주재한 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혜방꾼' 엘리엇, 끈질긴 현대차 압박

현대차·모비스 지분 공개하며 주주들에 의결권 대리행사 요구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우호세력을 포함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공개하며 세력 확장에 나섰다. 두 회사 주주들을 상대로 2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엘리엇의 대표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에이즈 엘.피.'(Elliott Associates, L.P.)는 4일 공시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포터 캐피탈 엘엘씨'(Potter Capital LLC)와 함께 현대차의 지분 약 2.9%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현대차의 경우 엘리엇의 지분율은 0.2% 수준이지만 포터 캐피탈 측의 지분(약 2.7%)을 포함하면 2.9%

다. 같은 방식으로 현대모비스 지분도 2.6%를 보유하고 있다.

엘리엇은 "두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흡한 자본관리 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회사 경영 관련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주 1주당 2만1967원을 배당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안건 △보수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 △(엘리엇 측이) 기 추천한 사외이사진 선임 안건 등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는 보통주 1주당 2만6399원을 배당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안건 △이사의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보수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 설치하는 정관 변경 안건 △(엘리엇 측이) 기 추천한 사외이사진 선임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26일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기말 배당 3000원을 주주총회 목적 사항으로 상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상태다.

현대차 이사회는 "엘리엇의 제안에 따르면 배당 총액이 약 4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간 회사의 배당 총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엘리엇 제안 거절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손경식 회장 '빛나는 관록'... 경총, 재계 핵심으로 키웠다

취임 1년 달라진 위상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위상이 손경식 회장 취임 1년 만에 180도로 바뀌었다. 과거와 달리 노사관계 외에도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총을 방문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짧은 기간에 경총이 탈바꿈한 배경에는 손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손 회장이 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식 때 손 회장은 "기업 현장과 경제단체를 거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상생의 노사관계 및 경제발전이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손 회장 취임 당시 재계는 위기를 맞았다. 오랫동안 재계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게 됐다. CJ그룹 회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8년간 맡은 손 회장의 경총이 어

대한상의 회장 역임 등 경험 바탕

주요 경제사안 재계 목소리 대변

특별격려금 폐지 등 내부 개혁

노사관계 탈피 경제단체로 변신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도 늘어

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손 회장은 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주도했다.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사업 목적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책 구현'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노사관계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종합경제단체로 변신을 꾀한 것이다.

이후 경총은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손 회장은 1월 열린 경총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손경식 회장 취임 후 경총의 변화 및 성과

2018년	7월	사업목적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책 구현'으로 확대
		경총 내부 개혁 단행
	11월 7일	- 회계 운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11개 회계 단위를 4개로 개편 - 특별한 근거 없이 집행돼 논란됐던 특별격려금 제도 폐지
	11월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총 방문
	11월 2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총 방문
2019년	12월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총 방문
	2월 19일	경총 참여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 도출



에 대해 "한진 그룹에 일어난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주주권 행사에 대해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작년 7월 경총은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시절부터 일부 사업 수입을 유용해 임직원들의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손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내부 개혁을 시도했다. 회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11개 회계 단위를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건물특별회계 △경단협회계 4개로 개편했다. 논란이 됐던 특별격려금 제도 또한 폐지했다.

손 회장의 개혁 이후, 경총은 재계 핵심 단체로 부상했다. 작년 11~12월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차례로 경총을 찾아와 손 회장과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와 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에 방문한 것은 1970년 경총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경총은 향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남 또한 예정돼 있다. 이 총리는 1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올해 봄이 가기 이전에 경총 지도부를 모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KT 회장>

답답한 황창규 "유료방송 합산규제, 세계 유례없는 제도"

황창규 KT 회장이 케이블TV 인수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미 경쟁사들은 케이블TV 업체와의 인수를 확정하고 신사업 추진 중인데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이슈 때문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빠르게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갈 길 바쁜 황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 기간 중 황 회장은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황 회장은 개막 첫째 날 헤스페리아 타워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케이블TV 인수를 검토

국회 법안심사 사실상 장기화 '딜라이브' 인수합병 고민 토로

중"이라며 "합산규제가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인 만큼 그런 제도(합산규제) 대해서 여러분(언론)이 잘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큰 산을 넘어야 케이블TV 인수가 가능한 만큼 합산규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합산규제가 폐지됐음에도 국회에서 재도입에 관한 논의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



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 도입된 후 지난해 6월 일몰됐으나 미디어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도입 논의가 한창인데, 재도입이 확실해지면 KT의 케이블TV 인수는 물 건너간다. 30.86%의 점유율인 KT와 스카이라이프 연합군이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33%를

넘기 때문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케이블 업계 1위 CJ헬로를, SK텔레콤은 케이블 업계 2위 티브로드 인수를 발표했다. 불과 일주일 새 IPTV업체와 케이블업체 간 '빅딜'이 연이어 성사됐다. KT는 현재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업계 3위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이다.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각각 660만5107명(20.67%), 325만4877명(10.19%)으로 총 30.8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점유율은 37.31%로 올라가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가 언제 확정이 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달 25일 예정돼 있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를 연기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 2소위에서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과방위 측은 "2월 25일 예정되었던 과방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회의가 모두 연기되었음을 알린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사실상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KT가 상당 기간 유료방송 M&A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나온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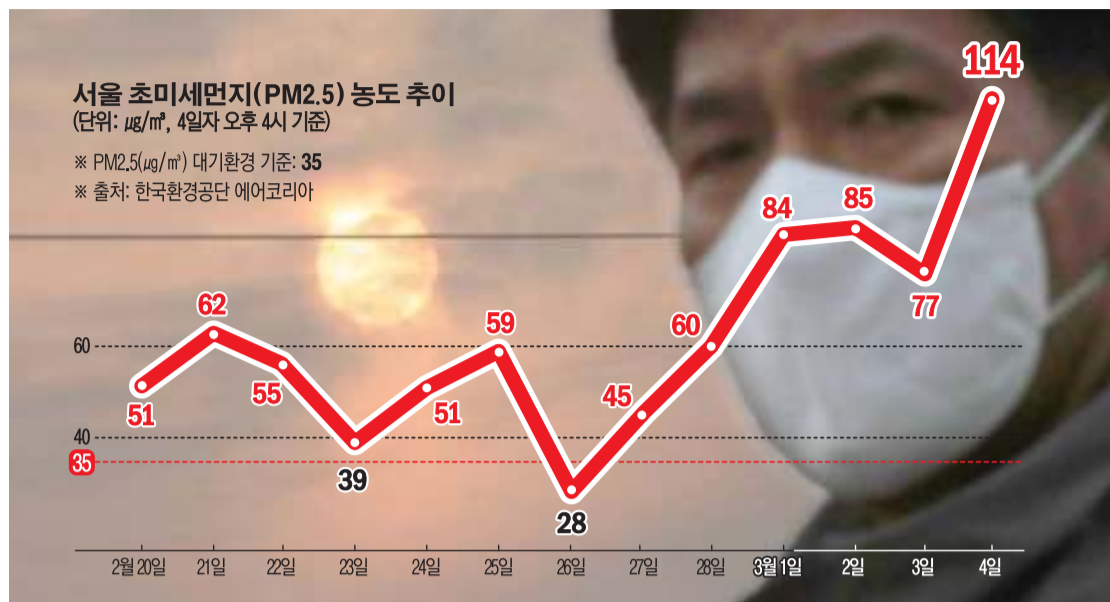
2.5일에 하루꼴 '나쁜 공기'... 짙어지는 미세먼지 공포

지난달 20일부터는 하루 빼고 다 '나쁨' 정황에 53개 관련 법안 논의조차 못해 마스크 구입액 세액 공제안도 '공회전'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PM 2.5)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답답한 대기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장기 공전으로 50여 개 관련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지난달 20일부터 미세먼지가 열흘 넘게 '나쁨' (36 $\mu\text{g}/\text{m}^3$ 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하로 내려간 건 지난달 26일 단 하루였다.

3일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 정보사이트 '에어코리아'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이었던 날은 11일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악화한 날이 9일인 것과 비교하면 2일이 늘어난 것이다. 4일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별 대기정보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 (75 $\mu\text{g}/\text{m}^3$ 이상) 수준을 웃돌았다. 오후 1시 기준 시



도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22 $\mu\text{g}/\text{m}^3$, 인천 130 $\mu\text{g}/\text{m}^3$, 경기 130 $\mu\text{g}/\text{m}^3$, 충남 111 $\mu\text{g}/\text{m}^3$, 세종 112 $\mu\text{g}/\text{m}^3$ 였다.

미세먼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미세먼지는 대기정체로 우

리나라에 쌓인 상태에서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농도가 심해진 것으로 진단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는 비 소식은 이달 중순까지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다. 게다가 올봄(3~5월)에는 황사 현상이 평소보다 많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등 황사 발원지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지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입법이 절실하지만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잠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만 모두 53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미세먼지 저감이 목표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의 제재 강화안은 2016년 6월 접수돼 계류기간만 약 2년 9개월이다. 지난해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 15%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법칙 논의조차 못한 게 많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가전업계 "청정제품 늘려라"

생활·소비 패턴 바꾼 '안티폴루션' <공해방지>

유통업계 "청정매장 늘려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에서 열흘 넘게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관련 제품군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기준에 공기청정기가 대표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옷과 빨랫감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내 주는 건조기와 의류청정기, 집안 미세먼지를 없애 주는 무선청소기와 전기레인지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일부 모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가전업계는 지난해 100만 대 규모이던 건조기 판매량이 올해 2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공기 질뿐 아니라, 외출 후 의류에 남은 미세먼지 제거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조기 '그랑데'는 세탁 후 남은 유해 세균 살균은 물론 집먼지 진드기와 꽃가루를 제거해 준다"며 "자주 빨기 힘든 의류는 '에어드레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에어드

레서는 제트에어와 안감케어 옷걸이로 걸감과 안감의 먼지를 털 후, 미세먼지 필터로 털어낸 먼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만으로 내부를 순환해 의류를 관리해준다. LG전자 역시 의류 청정기 시대를 처음 연 '스타일러'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

무선청소기 역시 인기다. 무선청소기 한 대로 먼지 흡입과 물 걸레질이 모두 가능한 'LG 코드제 A9'은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이번 달까지 경남 창원외 물걸레 키트 생산능력을 3배로 늘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 무선 청소기 신제품 '제트'도 5중 청정 해파 시스템을 적용해 청소 후 깨끗한 공기를 배출해 인기가 높다. 이 밖에 최근에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없는 전기레인지(인덕션)가 가스레인지로 대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레인지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서며 가스레인지를 밀어낼 전망이다.

송영록 기자 syr@

유통·외식 업계가 미세먼지와 전쟁을 시작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이들이 증가하자 매장 내 공조시스템을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도록 교체하거나 공기청정기를 비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백화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난해 말까지 신세계 전 점포의 건물 공조기 필터 교체 작업을 단행해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마트 역시 올해 초 전 점포의 공조기 필터를 기존보다 촘촘한 미디엄 필터로 교체했다.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 등 가전제품 양판점은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면서 매장 내에 공기청정기를 적극 설치하고 가동에 나섰다. 특히 전자랜드는 공기청정기 가동점을 전 점포로 확대하고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 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2016년부터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면서 전 매장에서 공기청정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미세먼지 잡기에 한창이다.

스타벅스커피는 당초 내년 예정이었던 공기청정 시스템 전 매장 설치 시기를 올해로 1년 앞당겼다. 스타벅스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전개해왔다. 스타벅스가 공기청정 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의 고객 유입률을 분석한 결과 설치 전 대비 8%가량 고객이 늘어나기도 했다.

CJ푸드빌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계절밥상, 빙스 등의 매장에 공조시스템을 통해 공기 질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던킨도너츠는 강남본점에 공기질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공기청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남주현 기자 jooh@

하 고

두산그룹 박용근(엘리아) 명예회장께서
2019년 3월 3일 오후 7시 35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빈 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일시... 2019년 3월 7일 오전 7시 30분
영결미사... 명동성당 2019년 3월 7일 오전 9시
장 지... 경기도 광주시 선영

- 아들: 정원
- 딸: 지원
- 며느리: 김소영
- 손자: 상수
- 손녀: 상진
- 손서: 구동휘
- 외손: 서장원
- 외손녀: 서주원
- 외손서: 이원준

연락처... 박승일
조화 및 부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02) 2072-12014

‘수출 불씨’ 다시 살린다... ‘新성장동력’ 6개 분야 육성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바이오헬스·2차 전지 등 꼽아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목표
깻잎·굴·전복 등 유망 품목 선정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박차

정부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을 뒷받침할 미래 수출 먹거리 찾기에 적극 나선다.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수출 체질 강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전자, 화학 등 주력 산업에 의존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산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바이오·헬스, 2차 전지, 플랜트·건설, 문화 콘텐츠, 한류·생활 소비재, 농수산물 등 6개 분야가 정부가 꼽은 ‘신(新)수출 성장동력’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첫 번째 육성 방안은 농수산물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올해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농식품 77억 달러·수산물 25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수출 확대 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깻잎, 아스파라거스 등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해 생산부터 물류, 판매까지 수출 전

수출활력 제고 대책

단기 수출활력 제고(8대 지원 프로그램 신설·확대)

계약	① 신수출 성장동력 특별 지원 신설 1000억 원 ②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1000억 원 ③ 해외 수입자 전담금융 확대 1조6000억 원 ④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신설 1000억 원
제작	⑤ 수출자금 대출·보증 확대 26조2500억 원 ⑥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신설 1000억 원
선적	⑦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 1조 원 직접매입 확대 4조9000억 원 ⑧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3000억 원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1조2000억 원

수출 품목·다변화

-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험인증 시설 구축(오송·대구), 의료기기 R&D 추진
- 2차전지: 차세대 배터리 육성펀드 조성
- 플랜트·해외건설: 정책금융 6조 원 지원
- 문화콘텐츠: 콘텐츠 펀드
- 한류·소비재: 한류+산업 연계 대형박람회(6월 태국, 10월 두바이)
- 농수산·식품: 신선식품 판매관 확충, 수산물 수출 클러스터 조성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

·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스타트업·벤처기업 →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
내수·수출 조화 중소기업 → 수출기회 확보 및 역량 강화
중견기업 → 수출 성장 사다리 지원 강화

수출역량 제고 및 절차 개선

기술 수출·인력·FTA 활용·
지재권 분쟁·디지털 무역 등

과정을 지원한다. 딸기, 파프리카, 포도 등 종전에 수출이 활발했던 품목은 수출 업체와 농가를 묶어, 수출 통합조직을 구축함으로써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고품질 품목을 육성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와 폴란드 등 6개 국가를 ‘전략국가’로 정해 수출 전초기지 삼기로 했다.

해수부는 굴, 전복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영에 굴 가공 거점단지, 완도엔 전복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조성한다. 또 부산엔 수출가공물류센터를 만들고 부산신항과 완도항, 인천항에 수산물 수출클러스터를 구축해 수산업의 수출 산업화(化)에 적극 나선다는 방

침이다. 정부는 수출 시장 역시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중심에서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시장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신남방 지역에서는 기간 산업과 소재·부품, 소비재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등 FTA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신북방 지역에서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와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채널을 가동해 자동차, 선박 수출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정부 대책에도 수출 전망 불투명

반도체 가격 하락·세계경제 둔화로 역부족

정부가 4일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이날 종합대책이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수출을 플러스 성장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단기 지원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단기 지원책에는 수출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중장기 지원책으로는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농수산물 등 신(新)수출 성장동력 육성 등이 제시됐다.

단기 지원책이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는 수출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려 준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재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요인이라는 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수출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악재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의 경우 주력인 D램 가격 하락세와 수요 부진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다른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도 유가 하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계경기 둔화로 작년 12월부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타격도 만만치 않다. 무역분쟁 여파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산업경기가 나빠지면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하락, 유가 하락, 세계경제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중앙아시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코트라, 우즈베키스탄에 설치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코트라(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 ‘중앙아시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플랜트수주지원센터는 프로젝트 정보, 벤더 등록 등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를 밀착 지원하는 기구로, 현재 두바이, 상파울루, 모스크바, 하노이, 뉴델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322억 달러의 플랜트를 수주했다. 중앙아시아 플랜트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0.5% 성장해 2027년에는 3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벡을 방문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센터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터내셔널비즈니스센터(IBC) 7층에서 열린 ‘제9차 한-우즈벡 무역공동위원회’에 앞서 가니예프 엘리요르 마지도비치 우즈벡 투자 및 대외무역 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영리병원 13년 노력에도 무위로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1면서 계속

정부가 외국 의료기관 도입을 추진하고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다.

정부는 2005년 11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고, 이 법은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이후에도 외국 의료기관 설립은 ‘의료영리화’ 우려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주도 외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8곳에서도 법적으로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첫 사업계획서 승인은 2015년 12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사업계획이 승인된 의료기관이 현재 개설 허가 취소의 위기에 놓인 녹지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까지 녹지병원 개설에 대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를 거쳐 12월 5일 내국인 진료료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개설 허가 이후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녹지병원은 12월 6일 제주도에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강수까지 됐다. 녹지병원은 계속 개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맞섰고, 결국 제주도는 개설 허가 취소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로써 지난 13년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되면 그 대안으로는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거론된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며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사 풀린 한은... 불합리한 업무관행 여전

단독 입수 내부감사 보고서... 고위험 리스크 2배 증가

한국은행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에서 고위험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전년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 감사 지적 10건 중 8건은 조직문화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불합리한 업무관행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4일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한은의 ‘2018년도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감사를 통한 조치요구 및 권고사항은 총 50건이었다. 이는 직전년 58건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 중 경영관리 부문이 37건으로 74%였다. 통화정책, 발권 등 고유 업무는 13건으로 26%에 그쳤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산관리·계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보호(8건), 경비보안(6건), 통화

정책 및 발권(각각 4건), 조사통계 및 예산회계(각각 3건) 순이었다. 특히 조치요구 사항과 관련해 리스크 크기(CSA·Consequence & Significance Analysis)로 평가한 결과 고위험이 17건으로 34%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연도 16.1%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중·저위험은 33건으로 66%를 차지했다.

고위험 관련 조치요구사항은 연구논문 윤리점검과 개인 및 전자정보 관리 등 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 미숙지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소홀히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조치요구 및 권고사항과 관련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조직문화가 45건으로 7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제도(8건,

14%), 사람(4건, 7%) 순이었다(1건의 조치요구 권고사항의 원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집계).

조직문화와 관련된 사항은 물품 구매 및 처분, 시설물 관리 등 자산관리·계약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정보, 전자정보 등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 절차 개선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수행, 보기화폐·화폐모조품 관리 등 고유업무 부문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각 부서는 업무 수행 시 제반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자체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생활권역’으로 확대

2022년 지역인재 채용 30% 목표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광역 시도에서 같은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만 한정해 오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같은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 시도에서 졸업한 대학생으로만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같은 생활권역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채용이 가능

해지는 것이다. 생활권역은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뉜다.

정부는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이전기관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지자체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신규 채용 인력의 약 절반(49.5%)에 달하는 의무채용 대상 제외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외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중(58.8%)을 차지하는 지역본부별 채용(4171명)과 연구경력직(1139명, 16.1%)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예외 축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文 대통령 “북미 대화 궤도 이탈 막는 게 급선무”

정부 “개성공단 재개 방안 美와 협의”... 美 “北 옥죄기 검토” 북미뿐 아니라 한미도 시각차... 비핵화 협상 장기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의 주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그만큼 ‘노딜(no deal)’로 끝난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엄중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 각 부처에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울러 “제재의 틀 안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며 “또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계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미 1.5트랙(반관반민) 협의 개최 방안 추진과 중국·러시아 등 관심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조

속한 북미 대화를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게 건넨 ‘빅딜’안을 둘러싼 북미의 견해차가 커 자칫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미 CBS, 폭스뉴스, CNN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비핵화 결단과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정리한 한글과 영어 두 개의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을 원했지만, 김정은이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영변 단지의 오래된 원자로와 우리농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에 대해 제한적 양보를 하는 대가로 상당한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배드딜’을 사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겠다”면서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 게끔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웃고는 있지만...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 2022년 9만1000원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2022년에는 현재의 3배까지 오른다.

육군은 4일 경기 남양주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의 배포자료를 통해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만2000원인 동원훈련 보상비는 1단계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1만3000원인 지역예비군훈련비는 같은 기간 3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으로 2024·2033년에 동원훈련비는 21만 원으로, 지역예비

군훈련비는 6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예비군훈련비는 각각 31만 원, 17만 원이다.

육군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 수준은 미약하다”면서 “예비군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상황 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육군은 철모와 군장, 배낭 등 개인 장구류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노후화한 동원예비군 장비와 물자도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충현 기자 lamuziq@

66일 만에 국회 정상화... 민생법안 처리 속도 붙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통과할 듯... 최저임금·소상공인법 난항 예상

자유한국당이 4일 조건 없는 국회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66일간 표류해온 국회가 정상화하게 됐다. 그간 쌓여온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50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늘 내로 국회 소집요구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민생법안 논의도 본격화한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소상공인지원법, 남북협력기금법, 민생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각종 혁신 성장 법안 등이 시급한 현안이다.

국회 파행으로 지연돼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은 노사 모두가 반발해 후

폭풍이 거센 만큼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나,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많다.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의 객관성부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여력이 빠진 것까지 노사 갈등을 불러올 요소들이 많다.

소상공인 기본법도 갈 길이 멀다. 중소기업의 일부로 다뤄졌던 소상공인을 독자 영역으로 보고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니 기자 honey@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국고고객만족도 1위
2018 NCSI 증권 금융상품매매부문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2018 KCSI 증권부문



소비자 중심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1 한국소비자
2018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하지만, 만족에 끝이 어딴습니까?

NH투자증권이 고객만족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만족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고객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투자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가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5002호(2018-12-19~2019-12-17)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CREATE 50

G2 무역전쟁 '종착역' 보인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미중 무역전쟁이 드디어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다. 중국 측이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과 자동차 제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한편 미국은 지난해 발동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양측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간극도 존재하는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처럼 막판에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WSJ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 진행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양국 간 남아 있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합의의 일환으로 농산물·화학 제품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겠다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 합작 사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규제 철폐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자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5%에서 더 낮추는 등의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WSJ "상호 관세 철폐·인하 검토" 美·中 정상회담서 합의할 수도

골드만삭스 "성공 확률은 75% 북미회담 '막판결렬' 와일드 카드"

중국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량을 늘릴 예정이다. 그 중에는 미국 셰니에르에너지로부터 천연가스 180억 달러어치를 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중국의 자국 기업, 특히 국영 기업을 우대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해왔는데, 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은 미국 기업의 불만을 해결하는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하고 있다.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양국 정부 당국자에 의한 양자 간 회의를 열도록 하고,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미국은 만일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크게 양보하는 셈이 된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는 시 주석이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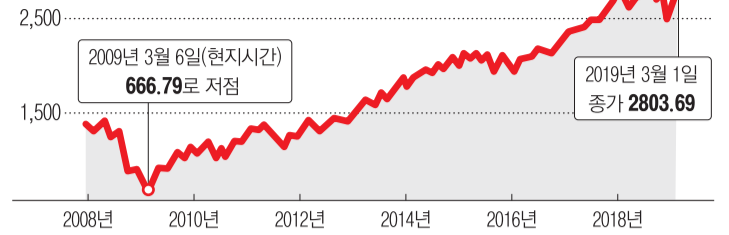
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인 오는 27일이 유력하다. 회담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플로리다주 휴양지 '마러라고 리조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양국의 무역협상 합의 확률을 75%로 점쳤다. 골드만삭스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협상에는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기술 이전, 중국 구조 개혁 등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75%의 확률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추후 구체 방안 등에 대한 조율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WSJ는 미중 무역협상의 와일드카드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꼽았다. WSJ는 "시 주석은 중국 측의 제안 내용이 미흡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반대의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트럼프는 지금 당장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뉴욕증시 S&P500지수 10년 강세장 추이



뉴욕증시 '10년째 황소장' 글로벌 악재에 고삐 잡히나

세계 경제와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탈출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미국 뉴욕증시는 이번 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강세장이 1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과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비즈니스가 분석했다.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시장 혼란이 절정에 달했던 2009년 3월 6일 뉴욕증시는 저점을 찍고 나서 이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바로 10년 강세장의 시작이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2월에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발표했고, 뉴욕 증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2007년 10월 고점 이후로 50% 이상 폭락, 월가는 투자자들의 한탄에 허덕였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되찾고 기업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증시는 극적으로 반전했다. 다우와 S&P500지수는 10년 전 저점을 찍고 나서 각각 300% 이상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증시가 주춤했으나 올 들어서는 회복세를 되찾았다.

CNN은 강세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S&P500지수는 올 들어 지금

까지 약 12% 올랐다. 이에 S&P 500 기업들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바탕으로 한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해 말 14배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6배로 회복했다.

휴고 로저스 텔렉스 수석 투자전략가는 "올해 랠리로 밸류에이션이 다시 높아졌다"며 "지난해 증시에 과매도세가 유입됐으나 이제 주식 이더는 싸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 실적도 지난해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올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감세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과 중국, 인도 등 세계 곳곳이 경기둔화로 허덕이고 있어 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더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내보냈으나 경제와 기업 실적은 이미 지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둔화하기 시작했다. CNN은 지적했다. 연준은 지난 2년간 무려 7차례 금리를 인상, 이에 부채가 많은 기업이 특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미국 고용지표가 35일로 사상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에도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 '양회' 개막... 텐안면광장서 '찰칵'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열흘 넘는 장정에 들어간 가운데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인민정치협의회(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텐안면 광장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귀웨민정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양국이 조만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텐센트 캐시카우 된 'e스포츠'

중 정부 지원사격 업고 '시장 평정' 올해 매출 2억1000만 달러 달할 듯

세계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홀딩스가 중국 지방정부들 등에 업고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텐센트의 e스포츠 담당자 허우마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투자를 늘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 내 e스포츠 관련 행사를 더 많이 개최할 것"이라며 "토너먼트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텐센트는 지난 2015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로 유명한 미국 라이엇게임즈를 인수해 매출 기준 세계 1위 PC게임 업체로 도약했다. 또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을 다수 보유한 액티비전블리자드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중국 최고 인기 모바일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게임으로 부상한 '왕자영요'도 텐센트의 작품이다. 텐센트는 현재 LOL과 왕자영요의 토너먼트를 주최한다. FT는 "텐센트가



2015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글로벌모바일 인터넷퍼포먼스(GMIC)'에서 한 방문객이 텐센트 전시회 부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주최·후원하는 e스포츠 토너먼트는 경기당 8000만 명 이상의 온라인 관람객을 유지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의 엄격한 게임 규제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토너먼트 개최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했을 때 지방정부가 투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게임·e스포츠 시장조사업체 뉴주는 "올해

전 세계 e스포츠 관객은 약 4억5400만 명에 달할 것이며 토너먼트·프로 리그 협찬을 통해 11억 달러(약 1조237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중국 e스포츠 산업 매출은 약 2억1000만 달러에 달해 유럽을 앞지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텐센트의 왕자영요 중국 프로 리그는 지난 2017년 맥도날드, 마스, 폭스바겐 등 큰 손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나이키는 지난달 텐센트 LOL 프로 리그와 4년간 30억 달러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텐센트는 또 자사 e스포츠 토너먼트 온라인 스트리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중국 게임 스트리밍 업체 더우위(Douyu)와 후야(Huya)에만 10억9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다. FT는 "텐센트가 e스포츠 전 분야에서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다"며 "텐센트의 투자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日 보험사 특명 "미안마를 뚫어라"

가입률 9% '블루오션'... 다이이치 생명, 외국계 첫 진출

일본 보험사들이 '아시아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미안마 보험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다. 올 1월 미안마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도 보험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다이이치생명을 비롯한 일본 대형 보험사들이 앞다퉈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 5000만 명을 거느린 미안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생명보험시장이 외자에 개방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 보험 가입률이 9%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많은 국가와 보험사들이 미안마 시장에 눈을 들어왔다.

미안마 보험시장은 1965년 설립된 국영 '미안마보험'이 독점해오다가 2011년 민주화 이후인 2013년 11개 민간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민영 보험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올 들어 시장 개방 폭은 더 커졌다. 1월 미안마 정부는 자국 보험 시장에 외국 자본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을 모집하고 라이선스 부여

를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미안마 정부는 최대 3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만 전액 출자를 허용하고, 나머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현지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미안마 정부가 해외에 시장을 개방하기 전부터 현지에 공들여 온 기업은 적지 않다. NHK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서 31개사가 미안마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닛폰생명(일본)은 이미 7년 전에 외국계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현지에 사무소를 열었다. 다이이치생명은 단독 진출을 목표로 이달 1일 심사에 필요한 제안서를 미안마 정부에 제출했고, 다이이치생명도 현지 보험사와 합작사를 만들어 미안마 진출 방침을 굳혔다.

NHK는 일본 보험사들이 아시아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미안마 보험시장 진출을 통해 거둬들이는 보험료를 미안마 도시 개발 등 인프라 투자에 사용해 미안마 경제를 발전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대형가맹점 계약 해지 압박에 카드사, 돌파구 찾기 '총력전'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의 '가맹 해지' 압박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가맹 해지 예고를 협상 카드로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가맹 해지 사태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 특히 카드 결제가 필수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카드사 가맹 해지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카드사 순이익 전망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기존	인상안
통신사	1.8	2.0~2.1
백화점	2.04	2.1~2.2
대형마트	1.96	(상등)
자동차	1.8	1.9

'이베이코리아' 카드 결제 15兆 협상 불발 땀 카드사에 치명타

가맹 계약 해지 제재 방법 없어 업계, 요율 협상 불리한 모양새

(수수료율) 조건이 항상 같게 적용되지 않고 협상에 따라 다르다"며 최종 협상안 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트 관계자 역시 "(카드사와 수수료율) 추가로 조율하겠다고 전달해놓은 상황"이라며 "현대차처럼 (가맹 해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와 이마트는 당장 가맹 계약 해지 등 '극약 처방' 식 협상은 자제하고 카드사와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언급한) 10일 이전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현대차 이외에 가맹 계약 해

지를 언급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이날 현대·기아차 동차는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안에 반발해 신한과 KB국민, 삼성, 하나, 롯데카드와 가맹 계약을 10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BC와 NH농협, 현대, 씨티카드는 현대차와 수수료율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 현대차는 "일부 카드사들은 인상 근거에 따라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1일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했다"며 계약 해지 사유를 밝혔다. 양측은 통보 시점 이전까지 협상을 이어가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마감'으로 정한 10일 이전까지 협상은 계속된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해 '갑'의 위치에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간접 개입을 암시한 부분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에 가맹 해지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고, 실제 법적 처벌까지 절차도 복잡하다.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그렇게 (수수료율 인상 압박) 말하는 데 대해 반론을 제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직접 영향을 받는 건 없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봄 단장'

교보생명이 4일 광화문 글판 '봄 단장'을 공개했다. 이번 문안은 정현중 시인의 시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에서 가져왔다. 어떤 역경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튀어오르는 공처럼 당당하게 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사진제공 교보생명

핀테크 기업, 보험·대출심사 직접 한다

금융위, 지정대리인 5곳 선정 2년간 혁신금융 서비스 시범 운영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 기업을 지정했다.

4일 금융위는 심사 대상 9건 중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5곳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팝핀딩(기업금융 P2P업체) △마인즈랩(온라인정보 제공회사) △핑거(온라인 정보제공회사) △크레파스솔루션(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 등이다.

금융 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 중 하나인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들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를 추진할 수 있다.

토스는 SC제일은행과 유저의 금융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소액·신용·단기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팝핀딩은 기업은행과 이커머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온라인 소상공인 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인즈랩과 현대해상은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핑거는 NH상호금융과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 안전하게 수집·처리해 데이터 집중 관리가 어려운 지역 농축협 조합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및 카드 발급 심사 업무를 함께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12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핀테크 기업 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상시 상담한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의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1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작년 외환거래 위반 1215건 제재

금감원이 지난해 외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1215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환거래 법규 위반 총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외국환

제재 조치 건수는 2016년 567건, 2017년 1097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42개 사로 과반을 넘겼다.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는 453건(37.3%), 거래정지는 98건

(8.1%)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705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그 뒤로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 매매 4.9%(63건) 등 순이다. 의무 사항별로는 신규 신고의 무 위반이 56.7%였다. 변경 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도 있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중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전표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기정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권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車 스마트키 사라진다...스마트폰 앱으로 대체

공유차부터 수소차까지 현대기아차, 기술 선도

현대차그룹이 미래차(車)산업의 변혁에 대비하기 위해 잔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4일 공유 자동차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키'의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출시될 신차에 차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기존처럼 스마트키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자동차 출입·시동·운행·제어가 가능해진다. 자동차 업계는 이를 통해 '커넥티드 카' 시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타인과 디지털키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소유주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키를 공유할 수 있다. 공동 사용자는 자동차 소유주의 인가에 따라 디지털키를 스마트폰 앱에 내려받아서 사용한다.

제한적 공유도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는 키를 공유할 때 사용 기간 또는 특정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령 택배기사에게 트렁크만 열 수 있는 키를 전송해 배송 물품을 차에 실어놓게 하거나



현대기아차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출입과 시동, 차량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키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은 디지털키 시연 모습.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관제센터 없는 커넥티드카

이달 신형 쏘나타부터 적용

최대 4명 앱으로 디지털키 공유

잠시 빌려줄 땐 대여기간 설정

수소차 충전 표준화 첫발

토요타 등 5곳과 부품 개발 MOU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면서 대여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향후 공유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자동차 대여자와 수여자가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키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키를 내려받은 후 운전석 또는 동반석 외부 도어 핸들에 접촉하면 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다. 탑승해서는 차량 내 무선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린다. 무선 충전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라도 디지털키를 지원하는 NFC 기능이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인 이 별도의 관제센터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차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커넥티드카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이 기술에 대한 보편이 이뤄지면, 자율주행차 개발 등의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2500억 증여세 대출받아 낸다

(SK 수석부회장)

주식담보대출 받아 나눠서 납부 최태원 회장의 주식 증여 마무리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증여에 따라 2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재원(사진) SK 수석부회장이 증여세 납부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세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돼 최 회장의 1조 원 규모의 주식 증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주) 주식 98만5900주(지분율 1.4%)를 지난달 22일 서초세무서에 납부 담보로 질권 설정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한국투자증권과 21만471주(0.3%)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에서부터 주식을 증



여받은 후인 작년 12월에도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6만689주(0.37%), 6만3847주(0.09%)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다. 최 부회장이 최 회장으로 부터 받은 166만 주 중 1.6%(152만907주)가 담보로 설정된 것이다.

이 같은 주식 담보 설정은 최 부회장이 증여세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연부연납 제도는 2000만원 초과 납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맡기고 향후 5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로 세금의 6분의 1 이상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담대출

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증여세로 지난달 말 먼저 낸 뒤 나머지 금액은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성장의 근간이 되어 준 형제 등 친족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SK(주) 지분 329만 주(4.68%)를 증여했다. 동생인 최재원 SK 그룹 수석부회장(166만 주)을 비롯해 사촌형인 고(故) 최원원 SK케미칼 회장 가족(49만6808주),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가족(83만 주) 등 친족들에게 SK(주) 주식 329만 주를 증여했다.

가장 많은 주식을 증여받은 최 부회장이 세금 납부 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은 만큼 이번 최 회장의 1조 원 규모의 주식 증여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eugene@

KCGI “한진칼 주주권 행사 적법 확인”

법원의 가치분신청 인용에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판결”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CGI는 4일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취지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CGI는 “주주제안권 행사에 한진칼 경영진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안전 상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법원 결정으로 주주제안권 행사의 적법함과 한진칼 경영진의 월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또 KCGI는 “상장회사 소수 주주권에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19일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리퀴드(Air Liquide) △수소 충전 설비회사 넬(NEL) △수소전기트럭 생산업체 니콜라(NIKOLA) △에너지 및 석유화학 그룹 셸(Shell) △토요타(Toyota) 등 5개사와 상용 수소전기차의 대용량 고압충전 표준부품 개발을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간이 한정된 수소탱크에 가스 상태의 수소를 효율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고압의 충전 기술과 이를 견딜 수 있는 자동차 및 충전기 부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상용 수소차는 고압(700bar) 대용량 충전 기술과 부품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더 큰 용량의 수소탱크를 탑재하고 충전하는 수소 총량과 단위 시간당 주입되는 양이 많아 승용차보다 부하가 더 걸리게 된다.

컨소시엄은 충전 설비 부품을 상용 수소전기차의 대용량 고압 수소 충전 조건에 만족하도록 개발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상용 수소전기차 충전 기술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관한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당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6개월 보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 고유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연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법원 판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자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상법상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주주 제안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갤S10 개통 시작...연간 4000만 대 판매 주목

라인업 늘고 S6 교체 맞물려 기대

삼성전자 ‘갤럭시S10’이 8일 전 세계 시장에서 순차 출시된다. 이에 앞서 4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예약주문 기기 사전 개통이 시작됐다.

업계는 갤럭시S10이 연간 판매량 4000만 대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4000만 대가 제품 성공 여부를 가르는 일종의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갤럭시S5부터 갤럭시S7까지는 모두 첫째 판매량이 4000만 대를 넘었다. 하지만 2017년 S8과 지난해 S9는 각각 3600만 대, 3500만 대 수준에 그쳤다.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연간 판매량이 4000만 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능 면에서 전작과 다른 점이 적다는 평을 받은 갤럭시S9와 달리 ‘홀 디스플레이’와 전면 지문인식, 배터리 공유 등 최신기술이 들어간 영향이다.

또 기존 두 가지 라인업에서 보급형과 5G 등 두 개 라인업이 늘어나며 고객들의 선택권도 넓혔다. 이 가운데 22일 예약판



4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갤럭시 S10’ 사전 개통 행사에서 1등 경품 당첨자 정문경 씨가 휴대폰을 받고 있다.

매가 시작되는 갤럭시S10 5G 버전의 대기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갤럭시S10 시리즈가 출시 12개월 이내에 4000만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운정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이전과 다른 혁신기술 채택과 더불어 보급형

폰, 5G폰으로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흥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도 “갤럭시S6, 갤럭시S7 사용자가 올해 교체할 가능성이 크고, 상승한 가격은 아이폰에 비하면 여전히 20% 이상 싼 수준”이라며 연간 판매량이 4000만 대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록 기자 syr@

LG전자, ‘車 소프트웨어 리더’ 인정받아

부품 SW 표준단체 ‘오토사’ 스트래티직 파트너 자격 획득 국내 최초...日 덴소와 단 둘

LG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분야 상위 등급 자격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국제표준단체인 ‘오토사(AUTOSAR)’의 ‘스트래티직 파트너(Strategic Partner)’ 자격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2017년 오토사 가입과 동시에 프리미엄 파트너 자격을 획득한 이후 오토사의 표준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위 등급으로 올라섰다.

오토사는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규격을 발표하고 있다. 표준개발에 참여하는 파트너사는 권한에 따라 코어(Core)·스트래티직(Strategic)·프리미엄(Premi-

um)·디벨롭먼트(Development)·어소시에이트(Associate)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스트래티직 파트너는 표준 규격 제정뿐 아니라 단체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스트래티직 파트너 자격을 획득한 회사는 LG전자와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덴소’뿐이다.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LG전자는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 칩 제조사, IT 서비스 업체(HERE, Luxoft) 등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오픈소스 기반의 차량용 플랫폼인 ‘웹OS 오토(webOS Auto)’를 적용할 계획도 있다.

LG전자는 이번에 획득한 오토사 스트래티직 파트너십과 웹OS 오토를 기반으로 차세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1969년 3월 6일 김포공항에서 진행된 대한항공의 대한항공공사 인수식.



1972년 4월 19일 대한항공 B707 여객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첫 취항했다.



1988년 8월 27일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뒤로 공식 항공사인 대한항공 특별기가 보인다.

조용한 대한항공 50돌... “징계 직원 1000명 불이익 해소”

외부행사 없이 임직원 기념식 직원 다독여 100년 기업 의지를 IATA 총회 주관 ‘재도약’

“1000여 명 징계 직원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침체됐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제시한 카드다. 이들은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으로 불이익

을 받지 않게 된다.

1969년부터 반세기 동안 하늘길을 개척해 온 대한항공이 50주년을 맞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리스크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려 새로운 100년을 향해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만성적자 기업 인수, 50년간 매출 3500배 성장 = 1969년 3월 1일 대한항공은 만성적자를 내던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구형 프로펠러기 7대와 제트기 1대로 출범했다.

창립 7개월 만에 가장 먼저 뚫은 하늘길

은 파병을 비롯해 한국 건설사 진출로 수요가 폭증하는 사이공(현 호찌민) 노선이였다. 당시에는 비행기 하나로 여러 노선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울-오사카-타이베이-홍콩-호찌민-방콕’ 노선이 대한항공의 첫 국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아시아 11개국 중에서도 가장 후발주자로 시작한 대한항공은 현재 166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전 세계 글로벌 항공사로 발돋움했다. 반세기 동안 지구 25만4679바퀴를 돌며 7억 명이 넘는 승객들을 수송

했으며, 연매출액과 취항 노선 규모도 각각 3500배, 37배 성장했다.

◇70년대, 그리운 해외동포들의 전령사 = 1972년 4월 19일. 태극 마크가 선명한 B707 여객기가 하와이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항에는 몇 시간 전부터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한국 비행기를 기다린 동포들로 가득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넌 대한항공 여객기가 하와이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모습이다.

특히 1975년 개설된 바레인 노선은 사막의 땅에서 피땀을 흘리던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실어 나르는 전령사였으며, 1979년 첫 취항한 뉴욕 노선은 교포들이 고향으로 한숨에 달려올 수 있는 수단이었다.

◇‘88올림픽 공식 항공사’ 대한민국 홍보대사 = 1985년 ‘88서울올림픽’ 공식 항공사로 지정된 대한항공은 항공기 태극 마크에 올림픽 휘장을 달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다. 대한항공 특별기 KE1988편으로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채화한 성화를 수송했으며, 헝가리 선수단을 수송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노선을 운항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공식 항공사로서 축구선수가 공을 오버헤드 킥으로 차는 역동적인 장면을 항공기에 래핑, 전 세계의 하늘을 누볐다.

6월에는 ‘항공업계의 UN 회의’라 불리는 IATA 연차 총회를 대한항공이 주관한

다. 세계 각계에서 1000여 명 이상의 항공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회의이자,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만큼 대한항공에도 의미가 크다.

◇역경 이겨내고...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 = 대한항공은 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대규모 외부행사 없이 임직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최근 몇 년간 오너 리스크 등으로 부침을 겪었으며, 특히 지난해 불거진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을 위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양호 회장은 이에 앞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 했던 직원들이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징계 받은 직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은 제외 대상이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 사업부문에서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으며, 고객 신뢰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3년 16조 원 매출을 달성하고 보유 항공기는 19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2023년까지 차입금 11조 원, 부채비율은 39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UNIQUEMI
제주 방림원
화산송이동굴 100일 발효
Uniquemi Premium Mask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UNIQUEMI
JEJU WILDFLOWERS

유니크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포스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개설

최정우 회장 ‘기업시민’ 일환 수료자에 사무 공간 등 혜택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초기창업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예비창업자가 창업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향후 프로그램 수료자는 포스코가 설립할 벤처 벨리에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해 사업성 적격심사 통과 시 사무공간을 제공받는다. 이외에도 입주 정착금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를 통해 P-펀드(포항지역 전용 펀드)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포스코는 위드 포스코(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4일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을 개설하고 창업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은 예비 창업자 또는 기창업자(1년 미만) 중 만 49세 이하 창업 아이템 보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4차수, 차수당 25명씩 100명을 선발해 포항과 광양에서 합숙 교육으로 진행한다.

처음 시작하는 이번 교육은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숙박비와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우즈베크에 47대 공급 계약

두산인프라코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굴삭기와 휠로더 등 건설기계 47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광산 및 인프라 건설용과 석유가스관 공사용으로 굴삭기와 휠로더 46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고객사는 장비 임대업체와 대기업 두 곳으로, 이전부터 두산

인프라코어 장비들을 구매, 운영하고 있는 대형 고객들이다.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철도 건설 관련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 수도도 기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능과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현지 시장 수요를 사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이 수주 성공으로 이어졌다. 최근 사우디 건설기계 시장은 현지 정부의 인프라 건설 투자 및 재정 지출 확대 발표 등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하나금융그룹

KEB 하나은행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하나되어 외쳐봐! 대한민국

1919년, 혼자가 아닌 하나였기에
대한독립의 함성이
더 크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100주년이 된 지금,
생각보다 가까운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해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KEB하나은행 '착한기부' 이벤트

KEB하나은행이 독립 유공자 후손들을 후원합니다
'생계 및 교육지원 사업' 최대 4억원
손님의 참여로 기부금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 기간:** 2019년 2월 11일 (월)~4월 11일 (목)
- 경품:** 1등,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여행상품권 100만원 상당 (10명)
2등,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20명)
3등, 1만 하나머니 (100명)
4등, 스타벅스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 1매 (2,970명)
- 응모방법:** 예금 (1백만원/1년 이상) 또는 적금 (10만원/1년 이상) 또는 1Q뱅크신규가입 1좌당 1천원 기부금 적립 (자동응모)



가슴 벅찬 그 이름 대한민국!!
캠페인 영상을 KEB하나은행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캠페인 영상 '좋아요' 1개당
5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KEB하나은행 X 김하은

* [예금/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행사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콜센터(1599-1111, 0,1)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9년 4월 1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1599호(2019.02.21) / CC브랜트190221-0137

코인 상폐 잇따르는 거래소... “원인은 부실 검증”

(가상화폐)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투자자 A씨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코인의 상장 폐지(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매할 때보다 시세가 너무 떨어져 계속 보유하기로 결심했지만, 이전 가격이 회복해도 제때에 팔 수 있을지 고민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1일 블록틱스(TIX), 살루스(SLS), 솔트(SALT), 윈스다오(WINGS) 등 4종 코인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들 4종 코인은 9일 거래가 종료된다.

업비트는 블록틱스가 이벤트(행사, 공연) 티켓 분배 및 프로모션 시장을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로 출발했지만, 유의미한 기술적 진전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어플리케이션 내에 진행되고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래

업비트, 블록틱스·솔트 등 4종 오케이코인도 5종 거래 종료

지금까지 두 곳 합쳐 31종 상폐

“상장 검증 제대로 안 이뤄져... 가상화폐 상장 기준 강화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 나서야”

가상화폐 상장 기준 강화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 나서야

종료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 살루스는 장기간 기술적 진전이 없었고, 솔트는 관련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재받은 점을 꼽았다. 윈스다오는 서비스의 실질 사용자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오케이코인코리아(OKCOIN코리아)도 지난달 26일 에어스왑(AST), 디지털바이트(DGB), 유티러스트(UTK), 데이터(DAT), 디직스다오(DGD) 등 5

거래소명	코인명	비고
업비트	블록틱스(TIX), 살루스(SLS), 솔트(SALT), 윈스다오(WINGS) 등 15종	ETH마켓 제외
	에어스왑(AST), 디지털바이트(DGB), 유티러스트(UTK), 데이터(DAT), 디직스다오(DGD) 등 16종	두 달간 출금 지원



종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해 상장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오케이코인코리아 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애초 상장을 위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와 오케이

코인코리아 두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서비스 이후 총 15종(ETH마켓은 제외)이 상장폐지됐고,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총 16종의 거래를 종료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상장과 상장폐지 등은 거래 중개 사업에서 핵심 업무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들이 상장 코인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

은 것이 이런 사태의 원인”이라며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자율적인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권(주식)의 경우 국가 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상장폐지를 엄격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가능하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민간기업으로 전적으로 해당 거래소의 결정에 따른다. 이 때문에 업계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로서는 거래소들의 상장 절차와 심사 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무분별한 상장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어 상장 기준 강화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이어지지만...

“확정까지 15개월, 대기업 진출 땀 속수무책”

연말까지 83개 업종 신청 전망 “대·중견기업 견제 기능 미흡... 심의·선정 확정기간 단축해야”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현재까지 6개 업종이 신청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7개 업종 가운데 자전거 소매업과 플라스틱 봉투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미리 신청을 마무리해 모두 6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포장협회와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6개

업종 단체가 2월 말까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접수를 완료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하지 않은 2곳은 신청 대상 단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스스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에 대기업이 범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점포를 확장하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의 허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적합업종을 신청한 단체 중에서도 복잡한 신청 절차와 미흡한 대기업 견제장치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김치 업종을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동반위에 신청하면 최대 9개월, 거기서 협의해 중기부로 넘어가는 데 최대 6개월, 2개 기관을 합쳐 무려 1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 사이 대기업이 동종업계에 진출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첫 시행됐다.

지난달 신청 기한이 만료된 7개 업종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중기 적합업종이 만료돼 올해 연말까지 새롭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할 업종은 골판지 상자를 비롯한 김치·단무지·도시락·순대·원두커피·재생타이어·두부·레미콘·막걸리·차량용 블랙박스 등 83개에 달한다. 각 업체 관련 단체는 연말까지 대부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적합업종 보호를 위해 기한이 만료된 업종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적합업종 권고사항과 같은 수준으로 이달 내에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청 뒤 심의 및 선정을 확정하는 기간도 법정기간이 15개월이 아닌 최소 9개월 내에서 가능하도록 실행조사와 선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중통령’ 김기문 첫 행보는 뿌리산업 현장 찾기 김기문(왼쪽) 신임 중소기업중앙회장 이 4일 오전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위치한 금형 중소기업을 찾아 뿌리산업 직원들로부터 금형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카이스트·고려대·성균관대, 인공지능 대학원 선정

5년간 90억 지원...최대 10년

인공지능분야의 국내 고급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2019년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의 3개 대학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 성균관대를 2019년도 인공지능대학원으로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KAIST는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전임 교수진을 확보하고, 2023년 이후에는 인공지능대학원을 넘어 단과대 수준의 인공지능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려대는 박사과정 중심으로 해당

대학원을 운영하고, 글로벌 최우수 콘퍼런스 등재를 졸업요건으로 해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15명의 전임 교수진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엔 선정된 대학에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90억 원을 지원한다. 향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5년을 추가해 총 10년간 19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3개 대학은 올해 2학기(가을학기, 9월)부터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카카오, 연세의료원과 100억 규모 헬스케어 투자

‘헬스케어 ICT 합작법인’ 설립

카카오가 연세의료원과 손잡고 헬스케어 합작 법인에 투자한다.

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연세의료원은 4일 헬스케어 ICT 합작법인 ‘파이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1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투자협약식에는 윤도홍 연세의료원장,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 박지환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연세의료원은 파이디지털헬스케어에 650만 질환자의 의료 데이터와 의료 정보



윤도홍(왼쪽) 연세의료원장과 박지환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파이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카카오

시스템의 관리 노하우를 제공한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이러한 의료 빅데이터가 갖는 의미와 정보를 도출할 데이터 구조화

기술 및 플랫폼 등 기술 지원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다. 분석된 데이터는 비식별, 익명화되어 의료 현장에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도홍 연세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원이 추구하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과 혁신 의료 서비스 제공도 보다 가까운 현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지환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카카오의 ICT 기술과 연세의료원의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결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내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네이버 열린연단 ‘삶의 지혜’ 주제로 6번째 강연

네이버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이하 열린연단)은 ‘삶의 지혜’를 주제로 6번째 강연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연 시리즈는 개인의 인간적 성장과 관련해 보람 있고 성숙한 삶의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다.

열린연단은 국내 석학들이 직접 주도하는 강연 프로젝트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를 자문위원장으로 유종호 전 연세대 석좌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이승환 고려

대 교수, 김상환 서울대 교수, 문광훈 충북대 교수, 박명립 연세대 교수 등 7명의 자문위원이 프로젝트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6번째 강연 시리즈는 1년간 8색션으로 나눠 총 50회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한남동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진행되며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경 문화인류학자, 정민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정유경의 '연작'... '제2 설화수' 될까

〈신세계 총괄 사장〉 〈럭셔리 한방 화장품〉

중고객 타깃 고기능 화장품... 면세점 매출 한 달 만에 9.8억
신세계인터 "뷰티사업 확대... 2년 내 브랜드 매출 1000억"

정유경(사진) 신세계 총괄 사장이 이끄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선보인 럭셔리 한방 화장품 '연작'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2의 설화수·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는 각각 연매출 1조 원, 2조 원을 넘어서며 럭셔리 한방 화장품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패션으로 기반을 다진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최근 몇 년 새 뷰티 사업에서 확장세가 뚜렷한 데다 신세계의 백화점과 면세점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자체 화장품 브랜드 '연작'이 지난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정식 입점한 후 한 달 만에 매출 9억 8000만 원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럭셔리 한방 화장품 연작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화

품 제조 회사 인터코스와 손잡고 3년 동안 개발한 브랜드다. 한방 원료를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한 고기능 스킨케어 브랜드로, 현재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서울과 부산의 주요 상권에 3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연작의 이 같은 판매 호조는 럭셔리 한방 화장품을 좋아하는 중국 소비자에 맞춰 저자극 고기능 제품을 출시했고, 중국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선보인 결과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과 면세점 매장 확대, 해외 진출을 통해 2020년까지 브랜드 매출을 1000억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뷰티, 패션, 리빙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연작 외에 자체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를 생산, 판매 중이다. 비디비치는 2012년 인수한 토종 화장품 브랜드로, 지난해 연매출 1200억 원대



를 돌파하는 등 신세계인터내셔널 화장품 브랜드 중 최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아워글래스', '바이레도', '딤티크', '산타 마리아노벨라', '라페르바' 등 5개 해외 화장품 브랜드의 판권을 확보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특히 아워글래스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지난해 6월 국내에 들여온 해외 브랜드로, 국내 기업이 아워글래스의 수입 판권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패션보다 뷰티가 영업이익이 높은 산업이라 지난해부터 뷰티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아워글래스 판권을 확보했고, 향수 시장이 커지면서 바이레도, 딤티크,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연작과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해외 브랜드의 판권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봄내음 물씬~ 생딸기 음료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5일부터 2주 동안 생딸기를 활용한 음료 3종을 시즈 메뉴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메뉴는 △봄 딸기 라떼 △딸기 유스베리티 △딸기 파인 주스 등이며, 본산과 산청 지역에서 재배된 생딸기 품종을 사용한다. 사진제공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삼양식품 '튀김쫄면', 여름면 시장 정조준

'열무비빔면'도 리뉴얼 패키지

삼양식품은 비빔면 성수기인 여름철에 앞서 신제품 '튀김쫄면'을 출시하며 계절면 라인업을 확대했다.

튀김쫄면은 면에 감자전분을 넣어 쫄면의 쫄깃한 식감을 재현했다. 태양초 고추장, 식초 등 기본적인 쫄면 양념에 사과농축액, 배농축액 등을 넣어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쫄면과 튀김을 곁들여 먹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이번 제품은 고소하면서도 바삭한 튀김을 플레이크로 넣어 쫄깃한 면발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삼양식품은 별보빠이, 튀김칼국수에 이어 튀김쫄면의 패키지에도 뉴트로풍 디자인을 적용했다.



삼양식품의 대표 여름 시즈 제품 '열무비빔면'도 리뉴얼 패키지로 내놨다. 1991년 출시된 첫 열무비빔면은 2월부터 8월까지 시즈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기존 열무비빔면에 이어 신제품 튀김쫄면을 출시하면서 삼양식품의 여름 계절면 브랜드를 강화했다"며 "빠르게 선보이는 신제품을 통해 경쟁이 치열해진 하절기 라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신동빈 '스킨십 경영'... 직원들과 '구내식당 셀카'

직접 줄 서 점심식사하며 소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통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는 4일 신동빈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가 롯데지주 직원들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가까이 응했다. 신 회장은 특별한 약속이 없을 경우 구내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직접 줄 서서 음식을 받은 뒤, 별도로 마련된 임원 전용 공간이 아닌 오픈된 테이블에서 다른 임직원들과 다들 바 없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실제 구내식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롯데지주,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점심시간에 신 회장을 마주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앞서 1월 신 회장은 롯데백화점 인천 터미널점에 깜짝 방문해 '소통 경영'을



신동빈(가운데) 롯데그룹 회장이 4일 롯데월드타워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

펼치기도 했다. 당시 신 회장은 6층 식당가를 시작으로 각 층을 돌며 영업 상황을 세세히 살피었다. 특히 식품관 리뉴얼 등 매장 개편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고객들이 붐비는 이벤트 매장, '롯데 온리' 브랜드 매장도 점검했다. 지하철 연결입구 등 여러 곳을 둘러보며 고객 반응을 살폈다.

또한 '전자가격표시기(매장 내 모든 진열 상품은 종이 가격표 대신 QR코드가 표시)', '지능형 쇼케이스'를 비롯한 마트에 적용된 차세대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매장 방문 중 신 회장을 알아본 고객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신세계백화점에서 롯데로 간판을 바꾸고 1월 오픈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더 날~씬해진 궤련형 전자담배

'휴대성·그립감' 소비자 주목

릴 미니·글로 미니·쥬즈12 경쟁

궤련형 전자담배도 가볍게 즐기는 시대다. 초창기 안전성과 연속흡연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다소 투박하게 출시됐던 궤련형 전자담배가 휴대성과 그립감을 높이면서 한층 슬림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제품이 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제품 대비 1회 충전 사용횟수는 줄어들었지만 40~80대의 가벼움과 날씬한 디자인을 무기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BAT코리아는 4일 '글로 미니'를 출시하며 궤련형 전자담배 경량화에 불을 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KT&G는 '릴 미니'를 선보이며 가벼운 궤련형 전자담배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 4월 중 '쥬즈12'가 가세할 예정이다. 경량 궤련형 전자

경량 궤련형 전자담배 사양 비교

※출처: 각사

	릴 미니 (KT&G)	글로 미니 (BAT코리아)	쥬즈12 (쥬즈)
무게 / 크기(cm)	54g / 10x 2.8x 2	85g / 8.2 X 4.1 X 2	44g / 10.1 X 1.96 X 1.96
색상	화이트·민트	블루	블랙·화이트
가격(할인코드 적용)	10만 원(7만 원)	10만 원(7만 원)	가격 미정
연속사용 횟수	10회	15회	12회
궤련 호환 여부	○	X	○

담배 3파전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세 제품은 무게와 기능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경량 궤련형 전자담배 3개 제품 중 가장 가벼운 것은 쥬즈12다. 쥬즈12의 무게는 44g에 불과하다.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릴 미니다.

가격은 릴 미니와 글로 미니가 동일한 10만 원이다. 그러나 할인코드를 통해 최종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두 제품 모두 7만 원이다. 쥬즈12는 내달 출시를 앞

두고 있는 만큼 아직 판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액상형보다 궤련형 전자담배에 익숙한 소비자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확연히 다른 디자인과 간편한 휴대성을 앞세운 쥬의 등장은 기존 궤련형 전자담배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담배 제조사들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니스프리, 고객 결제 '셀프스토어' DDP에 오픈

이니스프리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셀프 스토어'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셀프 스토어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30대 소비자들이 매장 직원의 도움 없이 혼자 쇼핑하고 싶어 하는 '언택트' 경향에 맞춰 선보인 첫 매장이다.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상주 직원은 있지만 매장 내 첨단 스마트 기기를 도입해 제품 정보와 위치 안내, 맞춤형 제품 추천, 셀프 결제까지 직원의 도움 없이 고객 스스로 할 수 있다.

매장 내 다양한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제품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구매 경험을 제공한다. 셀프스토어에서 선보이는 디지털 인터랙티브 콘텐츠인 △'셀프 카운터'는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 기술을 기반으로 셀프 결제와 자동 포장을 돕는다. △'디지털 셀프(shelf)'로 브랜드 체

험 영상 시청과 제품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운셀링 키오스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이벤트와 할인 행사 소식, 매장 내 제품 위치, 베스트셀러 정보를 제공 받는다. 또 인공지능 상담원(AI) 챗봇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디지털 문진을 통해 피부에 맞는 시트팩을 추천하는 '시트팩 벤딩 머신'과 피부 상태를 체크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뷰티 톡 미러'도 마련됐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언택트 트렌드로 매장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 자유로운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 기기로 운영되는 셀프 스토어를 운영하게 됐다"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1호점에서 원활한 고객 경험과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중심으로 테스트 운영한 뒤 개선포인트를 보완해 추후 확산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위험성 커지는데...” 부동산 대체투자 키우는 증권가

경기침체·금리상승 기조 이어져
유동성 축소 대규모 환매 위험 증가
펀드 설정액 71兆 4년 새 2.5배 ↑
PF 대출·채권보증 규모도 증가세

구분	부동산신탁					총계
	관리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투자신탁	분양관리 신탁	
2015년 11월 30일	25,826	852,864	62,866	386,009	62,211	1,389,776
2016년 11월 30일	25,775	913,198	67,295	458,027	80,224	1,544,519
2017년 11월 30일	28,785	1,031,580	58,901	551,384	84,742	1,755,393
2018년 11월 30일	26,967	1,232,570	59,463	621,820	81,234	2,022,055

※출처 :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위험성까지 지적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도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부동산 관련 펀드를 운용하거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

출 등 부동산 관련 상품에만 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날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사 예비인가를 승인하면서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을 필두로 부동산 대체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리츠(부동산 투자 전문투자증권)부터 부동산신탁업까지 부동산에 대한

증권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신탁 펀드 설정액은 2014년 29조 원에서 지난해 71조 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및 채권보증 규모 역시 각각 19조4000억 원, 12조4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부동산 진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IB(투자은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딜 부문은 신규 수익이 축소되고 있다”며 “부동산의 경우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공급물량 부담 등으로 주택가격이 위축되고 있고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위험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주택가격 변동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면 대규모 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이 경쟁 격화로 이어져 중소 신탁사가 부실화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신탁사 수익률 하락과 함께 자산건전성 저하, 재무 레버리지 확대로 투자상품이 부실화될 수 있다”며 “증권사 특성상 PF대출은 유동성 변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규 먹거리 확대에 나서는 증권사가 많아졌다”며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IB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는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금융당국이 PFV를 활용한 PF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 중심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약속한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포스코강판 발행 주식 총수 1억6000만株로 확대” 포스코, 소액주주 액면분할 요구에 답할까

18일 주총에 안건 상정

포스코가 계열사 포스코강판 소액주주들의 액면분할 요구에 응답할지 이목이 쏠린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강판은 1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재 1600만 주로 한정된 발행 주식 총수를 1억6000만 주로 늘리는 정관변경 안건을 다룬다. 현재 주식 1주당 5000원인 액면가를 10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하는 셈이다.

포스코강판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받아 액면분할에 필요한 발행 주식을 총수를 변경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강판은 1988년 포스코가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도금강판 등 철강재를 제조하기 위해 세운 회사로 2002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연결기준으로 작년에는 전년보다 3.1% 늘어난 9403억 원의 매출과 27.25% 줄어든



17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매출이 처음으로 9000억 원을 돌파한 지난해 주가가 4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시장 전반의 약세와 실적 부진으로 줄곧 하락해 현재는 2만 원대 언저리에서 등락 중이다.

소액주주들이 액면분할 요구는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가 부양 기대감 때문이다. 포스코강판의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량은 5700여 주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 거래량이 적은 날은 1000주를 간신히 넘을 정도다.

포스코강판의 액면분할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주당 2만 원 수준인 주가는 2000원대로 낮아진다. 주당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심리적 부담을 덜어 신규 투자자의 유입 등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액면분할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하려면 최대주주인 포스코의 찬성표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포스코강판의 최대주주는 포스코로 현재 56.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기관투자가 중에서는 신영자산운용이 7.94%, 국민연금이 6.97%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3680명이 26.97%를 나눠 갖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바람에 포스코가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있었던 소액주주의 액면분할 요구가 무산된 바 있어서다. 2016년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개인주주가 제안해 이번처럼 10대 1의 액면분할 안건이 올라왔지만, 그날 다뤄진 주총 안건 중 유일하게 부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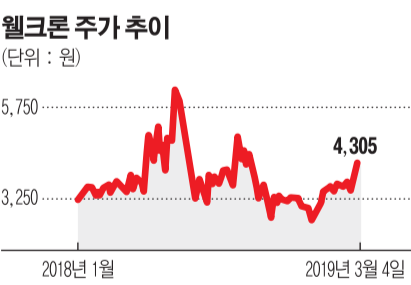
조남호 기자 spdran@

미세먼지 덕 보는 ‘마스크·공기청정기株’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4일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웰크론은 전 거래일보다 26.62% 오른 4305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기청정기 필터 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도 전 거래일 대비 13.62% 상승한 1만7100원에 장을 종료했다.

또 화장지와 마스크를 만드는 모나리자



는 전 거래일 대비 13.54% 오른 4655원, 방진 마스크를 공급하는 오공도 전 거래일

대비 9.77% 상승한 387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 밖에도 집진설비 업체인 KC코트렐(11.32%), 점안액을 만드는 디에이치피코리아(6.45%), 공기청정기 업체인 위닉스(6.23%)와 대유위니아(6.17%) 등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총 9개 사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처음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한양증권 “은둔 이미지 벗겠다” 43년 만에 새 CI 발표

한양증권이 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43년 만에 새로운 CI를 선보이는 CI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증권 임직원과 지난 6개월간 CI개발을 담당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송지성 교수(디자인대학 학장)가 함께했다.

새 CI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람 ‘인(人)’과 한양증권의 영문자인 ‘H’를 합성해 형성화했다. 더불어 심벌에 사용된

다양한 색상(그린·블루·옐로·레드)은 성장·신뢰·안정감·열정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창립 63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의 일환으로 43년 만에 새로운 CI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임직원은 이번 새로운 CI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은둔의 증권사’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달성’, ‘투자은행(IB)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소 증권사로 변신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증권은 자기가 본 및 브랜드 파워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강소 증권사로 변신하려는 쉽지 않은 ‘지도 밖의 행군’을 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증시 회복에도 인도펀드 ‘울상’

지정학적 리스크·유가 상승 영향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 -2.7%

지역/국가	1개월	연초이후
중국	11.41	20.12
베트남	7.58	8.73
인도	1.58	-2.70
일본	5.38	9.01
유럽	3.51	9.78
러시아	0.40	10.19
북미	6.45	13.60
중남미	0.91	11.32
브라질	0.93	11.86

※출처 : 에프앤가이드

올해 해외 지역별 펀드 대부분이 글로벌 증시 회복에 힘입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펀드만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25개 인도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2.70%다.

개별 펀드를 살펴보면 NH-Amundi Allset인도증권투자신탁이 0.20%로 가장 성과가 좋았지만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삼성인디아증권투자신탁(0.07%), 삼성글로벌인디아연금증권투자신탁(0.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체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3.65%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9.96%)을 웃도는 성적이다.

해외 펀드 중 수익률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중국 펀드로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20.12%에 달했다. 이외에 북미펀드(13.60%)를 비롯해 브라질(11.86%), 러시아(10.19%), 베트남(8.73%) 등이 모두 5%대를 훌쩍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 펀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지만 최근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익률 회복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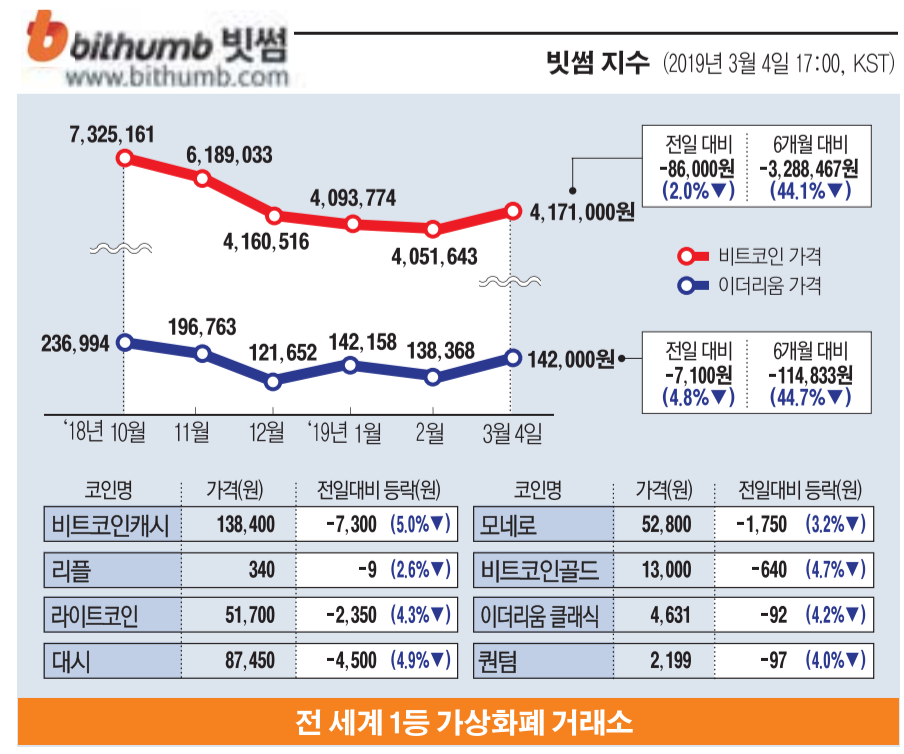
인도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다른 해외지역 펀드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배경은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지정학적 리

스크가 지목된다. 실제로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센섹스 지수는 지난해 연간 성과가 7.26%다. 하지만 최근 변동성을 겪으면서 연초 이후 센섹스 지수 수익률은 -0.0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인도펀드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들어 신흥국 시장이 관망했는데, 인도는 그렇지 않다 보니 실망 매물이 나온 영향”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상반기까지는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이슈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인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이후 다음 타깃이 인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CNN은 최근 인도의 관세가 높으며 노골적으로 지적인 점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계열사 지분손상 턱 화승알앤에이, 재무구조 '빨간불'

지난해 화승 투자 손상액 618억 1년 새 부채비율 85.45%P 늘어
차입금 의존도 6%P 증가 추산
여신 축소 자금조달 악영향 전망

	2017년	2018년
매출액	1조4434	1조5281
당기순이익	-418	-341
부채비율	371.43%	456.45%

※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

화승알앤에이가 ㈜화승에 투자한 금액 대부분을 지분 손상으로 털어냈다. 추가 손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열악해진 재무구조가 해결 과제로 남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승알앤에이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조5280억8941만 9000원, 영업이익은 50.8% 늘어난 539억 4305만7000원이다. 눈에 띄는 것은 당기 순손실로 341억 원 규모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화승알앤에이 측은 "매출 증가 등에 따라 영업이익이 늘었다"면서도 "지분증권 등 자산 손상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적자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손상을 안긴 주인공은 계열사 화승이다. '크까프'로 이름을 알린 화승은 2015년 12월 산업은행 PE와 KTB PE가 만든 사모펀드에 인수됐다. 당시 2463억 원 규모로 설립된 케이디비케이티비케이치에스사모펀드에는 화승그룹이 선·후순위 출자금으로 포함 1563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때 화승알앤에이와 화승인더스트리 등이 참여했다.

특히 화승알앤에이는 화승그룹을 대표해 투자금 상당수(1478억 원)를 냈고 여기에 별도로 신용공여 150억 원도 추가 출자했다. 하지만 산은의 관리에 들어간 화승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화승알앤에이는 2016년 682억

원, 지난해 446억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화승이 올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나머지 투자액 역시 손상으로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 화승알앤에이의 장부에 계상된 평가손상액은 618억 원으로 추정된다.

화승의 지분 손상이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탓에 주가에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악화된 재무구조는 심각하다. 화승알앤에이가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2017년 371%에서 지난해 456.45%로 급등했다. 단기 차입금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615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9.7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 54%에서 지난해 6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4일 "화승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점은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며 "재무구조가 악화할 경우 금융권의 여신한도 축소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자금유출은 신용공여에 따른 변제액 150억 원으로, 자금운용 한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후 영업실적 유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3배 가격'에 지분 판 유테크, 관리종목 지정 위기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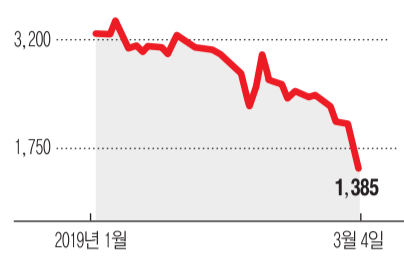
코스닥 상장사 유테크가 주가의 3배 이상 가격에 지분을 매각한 지 한 달 만에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4일 한국거래소는 유테크에 대해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결산 결과 연결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사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테크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 사업손실이 189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99.82%를 기록했다. 전년도의 경우 182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108.83%였다.

유테크 주가 추이
(단위 : 원)



지난해 매출액은 526억 원으로 전년도 319억 원보다 증가했으나 영업손실도 88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기순손실은 200억 원이었다.

유테크는 한 달 전만 해도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

지난달 11일 화신테크는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협력을 목적으로 유테크 주식 77만6053주(4.93%)를 70억 원에

취득했다. 주당 취득금액은 약 9020원으로 당시 주가가 2000원 중반대였음을 고려하면 3~4배에 매입한 것이다.

화신테크 관계자는 지분을 매입하면서 "유테크와 공동으로 향후 신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신테크는 유테크 지분을 인수하는 데 현금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았다. 전환사채(CB) 대용 납입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유테크 최대 주주 에이아이비트의 특수관계인 폭스브레인홀딩스는 화신테크가 발행한 제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납입대금을 유테크 지분으로 치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B 대용 납입을 통한 인수는 현금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이라며 "흔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씨앤피 매각 불발된 한솔케미칼 지난해 실적 회계처리도 '골머리'

사모펀드에 매각 완료 판단
중단 사업 손익으로 계상돼
재매각 난항 회계 차질 전망

자회사 한솔씨앤피 매각이 최종 결렬되면서 한솔케미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각 작업이 완료됐다는 판단하에 한솔씨앤피를 연결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성장동력을 잃은 한솔씨앤피의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작년 실적에 대한 회계처리도 바뀔아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솔씨앤피는 한솔케미칼이 2007년 IT코딩소재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한 도료 제조업체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시장 부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매각을 결정하고 한중 합작 사모펀드인 SBK파트너스·스카이루트와 한솔씨앤피 지분 전량을 262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솔케미칼은 지분 매각 예정 금액의 약 10%인 26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취했지만 이후 작업은 순조롭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매수자들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잔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한솔케미칼 측은 경영상 공백으로 인한

운영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결국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비주력 계열사 정리를 통해 회사 경쟁력 강화를 꾀했던 한솔케미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새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매각 결렬로 인해 발생한 회계상의 문제 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한솔케미칼은 한솔씨앤피 매각이 완료됐다고 판단, 한솔씨앤피를 연결회사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3분기 연결 매출/손익 부분에서 한솔씨앤피는 중단 사업 손익으로 계상됐다. 현금흐름이 악화하고 있던 한솔씨앤피가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됐고 3분기 매출액 1450억 원(전년 대비 7.3% 증가), 영업이익 330억 원(전년대비 40.8% 증가)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 4분기 실적에서도 약 125억 원의 매각 차익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작년 3분기 실적 변경 사항에 대한 정정공시와 함께 연간 실적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솔씨앤피 재매각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솔케미칼 측은 "재매각에 나설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회계부분의 경우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지금 만나러 갑니다
70th 창립 70주년
교보증권

로보서비스 무료이벤트

신용공여이자율 혜택이벤트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이벤트

EVENT 1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대상: 로보서비스(투자자의달인, 마보, 스톱트) 이용 무료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로보서비스 소개

- 1. 투자자의 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한 투자 추천
- 2. 마보: 마신라닝, 기술분석, 재무분석, 수급분석, 가치분석, 성장성 분석 등 총 6가지 평가요소를 통해 종목추천을 선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3. 스톱트: 2개의 로보전략이 시장의 행동을 분석하여 종목과 매도시점을 포착하여 알려주는 서비스

교보증권 MTS WinK > 전체 메뉴 > 로보/재무서비스에서 가입

EVENT 2 국내주식 신용공여 혜택 이벤트

대상: 신용공여이자율 연 4.9%, 담보대출이자율 연 5.5%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당시 최초 신규 및 휴면 고객의 비어면 계약개설건

EVENT 3 해외주식 담보대출 인하 이벤트

대상: 해외담보대출 연 4.1%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기간에 발생한 담보 대출건

EVENT 4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대상: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대상: 이벤트 기간에 비어면 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신규증권개설에 한함)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 인증
3. 주소 등 정보 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 인증
6. 신청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비해 예금보험금과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금 담보대출 미납 시 기간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휴면의 임박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매입에는 투자 한도, 거래시간, 분배, 과세방법 등 국내 채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 또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 채널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5대액 시 0.014%의 주식매매수수료를이 적용합니다. (신규합계와 기존 1개 적용, 중분할유연금·신규계한연 해외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비율(미)에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HKD, 중국 100CNY로 개정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등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해당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및 소비자 지원센터(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서비스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상품은 수익담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헬리오시티 입주에 주변 '역전세' 긴장

계약금 완납 70%... 절반 입주 8일부터 행복주택도 이사 시작 주변 지역 전세 하락세 이어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입구. 연합뉴스

송파 헬리오시티의 입주율이 50%를 넘었다. 이달부터 행복주택 입주도 시작되는 만큼 입주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감과 함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4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입주율은 50.5%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가락1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친 통계치다. 계약금 완납률은 70%를 웃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헬리오시티의 입주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입주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인 만큼 기간 내 입주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 물량은 총 9510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558가구, 조합원 물량은 6551가구다.

단지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이사 물량은 약 504건으로 예상된다. 엘리베이터 한 대당 하루에 3건의 이사를 진행할 수 있

는데, 한 개동에 엘리베이터가 두 대씩 설치돼 있다. 헬리오시티는 총 84개 동으로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행복주택 입주가 이달 8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입주 물량은 총 1401가구, 입주 기간은 5월 6일까지다. 현재까지 헬리오시티 행복주택의 계약률은 90%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취소 물량이 일부 나왔다.

헬리오시티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주변 지역의 전세가 하락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타격이 크다

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 동남권의 매매가격지수는 102.6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떨어진 99.3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남권의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는 각각 102.1, 100.9를 유지하며 변동 없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 아파트의 매매, 전셋값 변동률은 순서대로 마이너스(-)0.03%, -0.08%로 나타났다.

송파구 A공인중개사 대표는 "파크리오, 리젠시의 경우 지난달까지 전셋값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인근 다가구 주택은 헬리오시티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헬리오시티) 입주를 연기하는 사례가 아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4㎡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인 매매가는 15억~16억 원, 호가는 17억 원 전후로 나오고 전세가는 6억50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매매가에 1억5000만 원 정도는 거품이 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신정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 임박

추진위 요건 채워... 5월 총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신정뉴타운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받는 신정4재건축구역이 조합 창립 목전에 다다랐다.

4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말부터 주민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돌리기 시작한 추진위는 지난 달 말 소유자 기준 80% 이상, 토지면적 기준 70% 이상 동의를 달성해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을 채웠다.

추진위가 주민에게 배포한 조합설립동의 관련 안내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지출 비용이 5750억원, 사업수익은 4809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 자산총계가 4395억 원임에 따라 사업성 지표인 추정비례율은 109.41%로 산정됐다. 사업수익에서 사업 전 자산총계를 나눈 값인 추정비례율은 100%보다 클수록 사업성이

추진위는 5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을 채웠더라도 주민께 두 달간 추가분담금에 대해 안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5월에서 늦으면 6월 초 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7월 초에는 구청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정4구역은 신정뉴타운 내 유일한 재건축 사업지이자 사업 속도가 가장 느린 '막내' 개발구역이다. 특히 임대주택 비중이 낮은 것이 눈에 띄는 사업지다. 신정4구역은 임대주택이 11가구로 전체 물량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으로만 보면 서울시 정비사업지 중 역대 최소치로 알려져 있다. 임대비율이 낮은 까닭은 용적률을 높여 임대를 늘릴 이유가 없어서다. 사업지가 높은 구릉지에 위치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규제를 받으면서 용적률이 제한된 것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대출 규제 사라진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조정지역 해제... 전매기간도 6개월로



연산 더퍼스트 조감도. 사진제공 대림산업

대림산업이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에 대한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연제구가 청약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연제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최대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도 줄었다. 계약금은 기존의 10%에서 분납 형태로 바뀌, 1000만 원만 납부하면 계약이 가능하다. 2차 계약금은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 단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90-6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9층, 4개동 55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84㎡, 455가구로 구성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52㎡, 96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별로는 △52㎡ 96실(오피스텔) △59㎡ 72가구 △76㎡ 99가구 △84㎡ 284가구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집은 작게 단지는 크게... '중소형·대단지'가 뜬다

아파트 시장에서 전용 85㎡이하의 중소형 타입과 총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꾸준히 수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때문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양시장에서도 꾸준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4일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세대 구성원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대형 타입보다는 중소형 타입 실속형 아파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단지 규모에 비해해 부대시설이 다양하고 판

1~2인 가구 늘며 85㎡ 이하에 수요 몰려 작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 소형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77% 마감 성공

리비 부담도 적은 대단지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타입별 청약 경쟁률 순위에서 상위 10개 순위 중 7개를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타입이 차지했다.

부동산114자료에 나타난 거래량 역시 전용 85㎡ 이하 중소형 타입이 지난해 27

만7988건이 거래돼 4만6012건에 그친 85㎡ 초과 대형 타입과 약 6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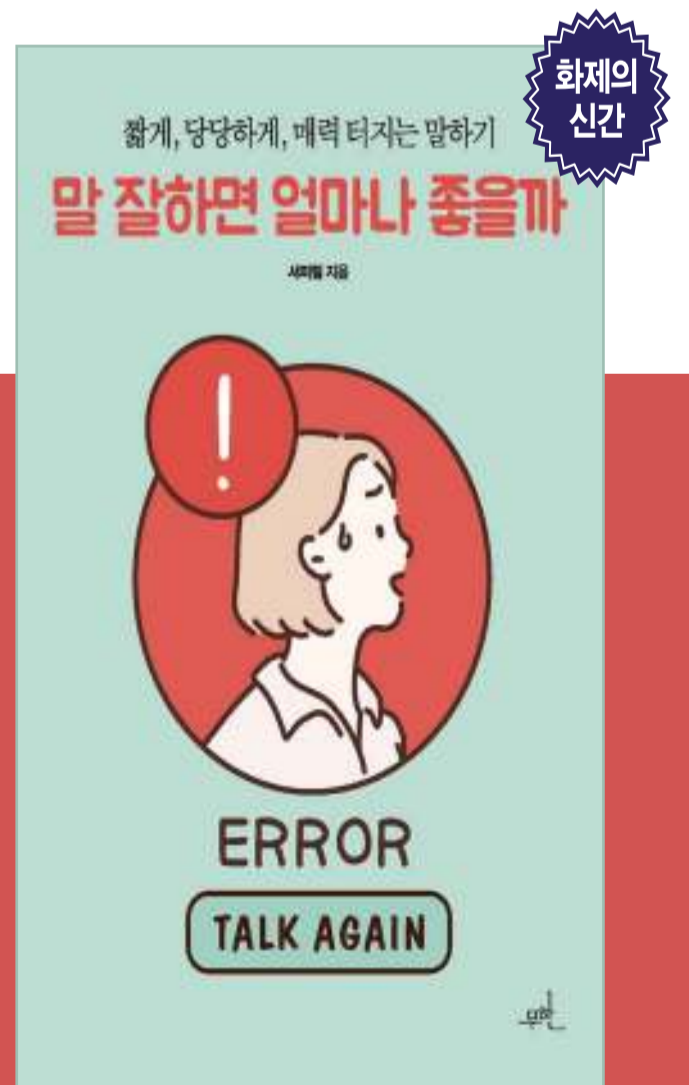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의 인기도 각종 지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0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총 53개 단지가 공급됐는데 이 중 77%에 달하는 41개 단지가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실수요층이 중소형 타입, 대규모 단지에 몰려들자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들 단지의 투자가치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금융부담 ↓ 안전망 ↑ 서울, 소상공인 살리기

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 낮추고 중소 육성금 1조5000억으로 확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자영업자 3종 패키지'도 추진

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 씩 추가 납입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상가임대차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26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 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동상임대료'를 마련,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총 25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전담 지원한다. 이는 지역·관계·현장 중심 지원으로 금융지원에 지역밀착형 경영지원,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를 더했다.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는 '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은 높이고 폐업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화한다. 종전 신용보증재단 본점 내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전제 플랫폼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지역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은 올해 광복지역 골목상권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서울시가 상권당 조성비용으로 25억 원(3년간)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유동인구, 구매성향, 쇼핑 방법 등 소비패턴을 분석해 주민들이 생활상권에 반할 요소를 찾아내고 종합컨설팅, 신상품 개발, 매장리뉴얼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시가 지역 내 69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금융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하고 고용보험료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도 '자영업자 3종세트'를 본격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4일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성장 저해 요인으로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 제감도 등을 꼽고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대책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경영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서울시는 올해 4만8000여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POS 연계,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발굴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료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도 등 자영업 3종 패키지도 추진된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1일간 하루 8만

“변전소도 산업시설”... 한전, 매매대금분쟁 승소

대법 “시화 변전소 부지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부지 매입가격을 두고 벌어진 4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2014년 6월 시화MTV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토지 2730㎡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전소부지 조성원가인 18억3355만 원만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뒤 나머지 매

매대금 4억7056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부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심은 수자원공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2심은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용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인천 관광하러 왔어요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중국 내 문화교류 단체 협회에 소속된 공연 단원인 이들 관광객 700여 명은 관광을 한 뒤 인천지역에서 전통문화 공연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학의 성접대 의혹” 디지털 증거 3만건 누락

대검, 경찰에 진상파악 요청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 3만 건 이상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송치 과정에서 경찰이 주요 관련자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

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진상 파악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치 기록에 복제본 첨부 누락된 디지털 증거가 3만 건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원주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에서 확보해 복구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전부 송치 누락했다. 또 윤 씨의 친척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복구한 사진 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누락했다.

조사단은 송치 누락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보관 중인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일시와 근거, 송치 누락 경위, 복제본이 존재할 경우 조사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2019. 03 3월호
Elegance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예의를 차려입다

COVERSTORY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예의를 차려입다

PART1. 설악이 있는 패션 - 시니어 시크의 스타일
PART2. 체형을 알고 패션을 선택하면, 스타일 백전백승
PART3.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옷장 정리 꿀팁
PART4. 내가 바로 시니어 패션 리더 - 시니어 모델 소은영, 핫한 모델 김철두
PART5. 패션 핫 아이템 '항수' - 스타일의 완성, 항수를 입다
PART6. 해외 시니어숍 콜릭 - 시니어를 사로잡을 세계의 패션 브랜드
PART7. 중년기자들의 패션 단상

월예이징 투석 시작하면 폐가망신은 멍! "만성콩팥병에 절망 마세요"

때론 유명인사의 죽음이 사인이 된 질환에 대한 선명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프레디 머큐리의 에이즈나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암이 대표적이다. 중장년들은 신부전증으로 유명을 달러한 가수 배호를 떠올린다. 비만 병환이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인이 전해지면서 이 병은 집 기둥뿌리 뽑아 병원을 대야 할 만큼 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하지만 예외는 혈액투석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1966년 사망했는데, 국내에 인공신장기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5년 수도권병원에서였다. 일반인이 쉽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전문의들 또한 이런 선명권에 반기를 든다. 신장병은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촌 먹고 입고 잘 수 있으면 끝 더 이상 무슨 필요?

살이 즐거운 건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다. 그러나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쉽지 않다. 살고 싶은 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대충 살기 십상이다. 이럴 때 살이란 위대한 곡예에 가깝다. 곡예 역시 진땀을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왕지사 한 번 태어난 인생, 심란한 곡예보다는 평온한 활보로 삶을 즐기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을 보라. 살고 싶은 대로 산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뭐라 하긴 상관없다. 내 방식대로, 내 지향대로 산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생의 '함께 다다랐을 때, 우리는 다 다다라' 성공리대학교 교수 연대회

소통과 공감을 위해 다시 청춘을 노래하다 8000대의 아이콘 조창현, 송시현, 이범하

질풍 7인 예술가미 미작품이 같은 예술혼 전라 작가 진공재, 권기호 태운 인생을 말하다

타박타박 도보여행 근대건축물의 보고, '인천개항누리길'을 걷다

전철 1호선을 타고 종착역인 인천역으로 간다. 전철 안에서 시간여행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인천역 앞에 있는 화려한 퍼무를 통과하면, 100년대의 일인전 개항 시절의 풍경이 펼쳐지는 상상 말이다. 실제로 하루, 나머지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머니테크 집주인도,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영 88㎡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밭상

올해이드 사할음식 보리누룇지와 봄나물로 차린 향긋한 제철 한 상

부치지 못한 편지

장갑호 전 이집트대사관 대사 탐라국 왕자님께

제로백 4.9초... 소형차들이 짜릿해졌다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트** '제네바 모터쇼' 프리뷰



2019 제네바국제모터쇼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개막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는 물론 르노와 푸조 등 프랑스 메이커가 걸출한 새 모델을 공개한다. 기아차는 지난해 유럽에 선보인 전락 해치백 씨드(Ceed)를 앞세워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다. 대세는 전기모터를 동력원으로 삼은 전동화로 기울어졌지만 일반 내연기관 엔진을 얹은, 작고 실용적인 소형 양산차를 중심으로 여러 메이커들이 새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2세대 CLA에 스포츠 감성을

◇메르세데스-벤츠 CLA 슈팅 브레이크 = 메르세데스-벤츠는 점진적으로 소형차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S-클래스를 앞세워 전통적인 고급차 시장의 왕좌를 노렸으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C-클래스 아랫급에서 다양한 라인업을 완성하고 있다.

CLA는 A-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4도어 쿠페다. 2014년에 데뷔했고 2세대 모델이 올 초 미국 소비자대전전시회(CES) 2019에서 공개됐다.

제네바 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슈팅 브레이크를 처음 공개한다. 슈팅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왜건(Wagon) 형태를 지녔으며, 보다 스포츠성을 가미한 모델이다. 구체적인 제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공개된 사진에는 CLS를 닮은 눈매가 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공식적인 국내 출시 계획은 없다.

'해치백+SUV' 크로스오버카

◇폭스바겐 티-록 R = 폭스바겐은 티구안 아랫급으로 자리매김한 크로스오버 모델 티-록(T-ROC)의 고성능 버전을 내놓는다. '크로스오버'란 2가지 이상의 콘셉트를 한 가지 차에 담아 놓은 형태다.

티-록은 소형 해치백과 SUV의 장점을 고스란히 모았다. R버전은 폭스바겐의 고성능 라인업인데 이번엔 나오는 차가 티-록 R버전이다. 직렬 4기통 2.0 TSI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은 무려 300마력에 달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9초면 충분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최고속도는 시속 250km에 달한다.

대화면 스마트콕핏 적용

◇르노 뉴 클리오 = 르노삼성이 직수입 형태로 판매 중인 르노의 '클리오'가 5세대로 거듭난다.

데뷔 29년째를 맞은 클리오는 지금까지 1500만 대 넘게 팔린 르노의 대표 소형차다. 작년에도 45만 대 넘게 팔리면서 프랑스인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로 선정됐다. 새 클리오는 앞 범퍼까지 파고드는 르노의 주간주행등 형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한눈에도 르노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판매 모델보다 눈매가 꽤 날카로워진 점이 특징이다. 운전자 중심의 '스마트 콕핏'을 도입했고 동급 경쟁모델에서 보기 힘든 대화면 스크린도 갖췄다.

르노 패밀리룩을 완성한 만큼 향후 등장할 르노 전체 라인업이 비슷한 모양새의 헤드램프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삼성 역시 새 클리오 판매를 검토 중이다.

공기 저항 줄여 연비 등 개선

◇푸조 208 = 푸조는 7년 만에 뉴 208을 선보인다. PSA그룹의 차세대 플랫폼인 CMP(Common Modular Platform)를 밑그림으로 개발했다.

푸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조해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을 형상화한 주간주행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형차 만들기 경쟁에 다다른 메이커답게 갖가지 첨단 기술도 가득 담았다. 이전보다 차체는 소폭 커졌지만 무게는 30kg 넘게 줄었다. 푸조는 공기역학 성능을 최적화해 연비와 성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전동화 시대에 맞춰 전기차 e-208도 선보인다. 1회 충전으로 최대 340km를 달릴 수 있다.

'2019 유럽 올해의 차' 도전

◇기아차 씨드 = 국내에는 없는, 유럽 전략형 소형 해치백 씨드는 지난해 고성능 버전 GT와 함께 신형을 선보였다. 이를 무기로 이번 행사에서 '2019 유럽 올해의 차'에 도전한다.

기아차 씨드는 △포드 포커스(Focus)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푸조 508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제규어 I-Pace 등과 함께 최종 후보(Shortlist) 7차중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1세대 씨드는 2008년에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 스텔리아가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유럽 올해의 차'와는 인연이 없었다. '북미 올해의 차', '대한민국 올해의 차' 등 지난해부터 상복이 터진 현대기아차의 명성이 유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준형 기자 junior@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CLA 슈팅 브레이크

5도어 스포츠 해치백을 기본으로 왜건의 특성을 접목. 뒤쪽에 무게가 더 실리면서 코너링에 강점.



Volkswagen

폭스바겐 티-록 R

소형 해치백과 SUV를 접목한 티-록(T-ROC)의 고성능 R버전. 제로백 4.9초, 최고속도는 시속 250km.



Renault

르노 뉴 클리오

스마트콕핏을 적용한 5세대 모델,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르노삼성서 국내 판매 검토.



peugeot

푸조 208

7년 만에 모델 물체인지, 주간주행등은 사자의 이빨을 형상화. 사진은 전기차 버전 e-208.



Kia

기아차 씨드

유럽 전략형 해치백, '2019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다.



차 안 만드는 스위스에 전 세계 브랜드 몰리는 까닭

첫세 부리는 자국 브랜드 없어 부스 크기 등 같은 조건서 전시 유럽 노리는 韓·美·日기업 선호

스위스는 남한 면적의 절반 수준의 땅에 약 850만 명이 용기종기 모여 산다. 가도 가도 눈 시리도록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이 국토를 가로지르고, 유럽 정서가

아웃이 담긴 자연 경관 덕에 창문만 열면 '이탈소 달력 그림' 하나쯤 가볍게 만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따져보면 자동차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세계 5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인 '제네바국제모터쇼'가 열린다. 독일과 프랑스도 격년마다 행사를 여는데 스위스는 매년 행사를 개최한다. 그럼에도 관람객들이 차고 넘친다. 이유는 하나이다. 영원한 중립국인만

큼 특정 브랜드의 첫세가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말, 글로벌 5대 모터쇼는 △미국(디트로이트)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랑스(파리) 등 자동차 생산국을 비롯해 △스위스(제네바)가 이름을 올렸다. 2010년대 들어 일본차들이 잇따른 품질 논란에 휩싸이는 사이 도쿄모터쇼의 위상도 위축됐다. 일본 내수시장 역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도쿄모터쇼의 규모도 절반으로 줄었다.

이 틈을 타 거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질주했다. '오토차이나'라는 이름을 앞세워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격년마다 대규모 국제모터쇼를 열고 있다.

이들 개최국 모두 자국 메이커 중심으로 행사를 연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가 각각 전시장을 하나씩 꿰찬다. 파리모터쇼에서는 르노와 푸조가 판을 치고, 북미모터쇼 역시 미국 빅3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다. 서울모터쇼라고 사정이 다르지는 않다.

반면 제네바는 공정하다. 영원한 중립국답게 모든 브랜드에 동일한 규격의 전시 부스를 제공한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나 한국의 쌍용차나 전시 조건이 동등하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특정 브랜드의 첫세가 없는 만큼 유럽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 한국차들이 제네바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소비자와 소통하며 업그레이드, 1등 제품 비결이죠”

초대석

김지영 라엘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



김지영 최고운영책임자는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친 전략 및 브랜드사업 전문가로 꼽힌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MBA를 수료한 뒤 보스턴컨설팅그룹, 메릴린치증권, 야후코리아 전략·인수·합병 총괄을 거치며 20년 넘게 경영 역량과 리더십을 쌓아 왔다. 특히 30대에 제일모직 상무에 오르며 삼성그룹 전문경영인 중 최연소 여성임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입어 달라블라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쇼핑 몰과 백화점에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또 다른 성공 비결로 시의적절한 투자자 유치를 꼽았다. 그는 “스타트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엔젤투자자 자금

유치가 필수”라며 “라엘코리아도 회사 가치를 높이 평가한 투자자 유치가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라엘코리아는 2017년 초 시드머니 투자로 프라이머, 슈피겐코리아, 스트롱벤처스

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같은 해 하반기 프라이머, 슈피겐코리아, 스트롱벤처스, 뱀벤처스로부터 브릿지투자를 받았다.

2018년 3월에는 프리 시리즈A로 소프트뱅크벤처스, 에이티파트너스, 트라이브마켓이 라엘코리아에 210만 달러를 투자했다.

또 2018년 하반기 시리즈A로 GS리테일, 미래에셋, 슈피겐코리아, 에이티파트너스, 소프트뱅크벤처스, TBT벤처캐피탈 등이 1750만 달러를 추가했다. 특히 슈피겐은 투자 이외에도 아마존 유통 전략 등 사업 컨설턴트 역할도 했다.

김 COO는 “슈피겐은 투자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서 초기 미국 사업 진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현재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엘코리아의 또 다른 강점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다.

그는 “현재 경영진은 개발·생산·마케팅 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망 구축에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됐다”며 “당사와 같은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은 고속 성장 시기에 과감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관련 고급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시장은 온라인 시장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올해 4월 오프라인 대형 유통 체인에 입점할 예정이다. 해당 체인은 미국 전역 1850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엘 생리대는 전체 매장에 동시 입점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신생브랜드가 300~400개 매장에 입점하고 나서 차례로 확대되는 것과 달리 아마존 내 인지도가 전체 매장 판매를 가능케 했다.

국내시장은 지난해 4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진출했고, 연초에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고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은 아마존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를 진행 중이다. 현지 총판 또는 유통사를 통한 오프라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동남아도 현지 총판을 통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진출이 기대된다.

고종민 기자 kim@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제품 생산과 마케팅은 ‘쉬코노미(SheConomy·여성경제)’라는 용어로 정리된다. 여성이 주요 국가들의 구매 결정자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수의 세계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은 가정 내 전체 구매 결정에서 여성이 85% 정도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김지영 라엘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서울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는 진정성 있고 새롭게 만드는 브랜드를 원한다”며 “특히 여성 고객들은 감성과 이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엘코리아는 여성의 키워드에 양방향 소통을 더 했다. 현재의 쇼핑 시장은 판매자 일방의 기획과 마케팅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모바일기기와 인터넷망의 발달이 판매자와 소비자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케 했으며, 최신 트렌드로 출시되는 제품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행성 생리대 라엘도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김 COO는 “소비자와 유통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 제조사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대형사들이 과거 대형 브랜드에 집중하는 전략에서 작은 브랜드 다수를 출시하면서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며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브랜드가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엘코리아는 아직 국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생소한 기업이지만 미국에선 꽤 핫한 기업으로 통한다. 아마존 내 구매자들의 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유행성 생리대 라엘은 5개 별 만점에 평가 만족도 4.7개를 기록한 인기상품으로,

‘라엘’ 출시 이후 6번 제품 개선
아마존 구매자 만족도 별 4.7개
유통업체 리브콜에 판매량 확대
슈피겐 등 엔젤투자자로 이어져
올해 국내 공식 쇼핑몰 오픈
中·日·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도

2018년 하반기 기준 미국 아마존에서 생리대 카테고리 내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성장동력은 소비자와 소통을 통한 제품 개선과 적절한 투자 그리고 시의적절한 유통망 확대다. 라엘은 제품 출시 이후 6차례 걸쳐 제품 개선을 했다. 라엘코리아 경영진은 제품 구상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여성 서비스를 모토로 했다.

김지영 COO는 “여성들이 생각하는 기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앞으로 여성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도와주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엘코리아는 국내에서도 미국 아마존 마켓 내 성공 후 유통업체들의 러브콜에 힘



자신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얼마나
즐거워!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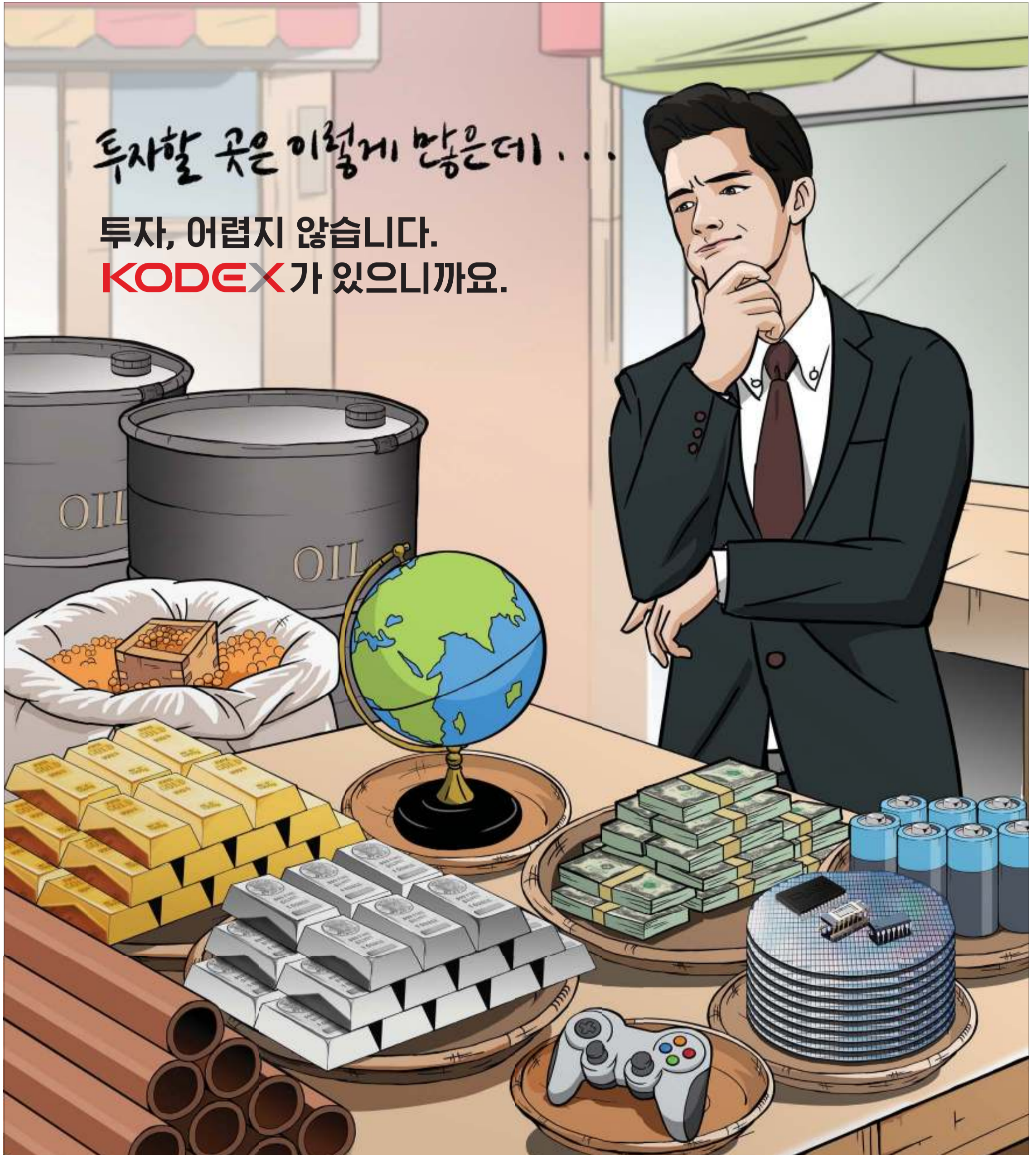
www.childfund.or.kr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투자할 곳은 이렇게 많은데...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KODEX가 있으니까요.



당신의 자산관리, 솔루션은 역시 **KODEX**입니다
대한민국 No.1 ETF KODEX

* 운용사 기준 순자산 총액, 일평균 거래금액 1위(KRX ETF·ETN Monthly 2019.1)

KODEX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당신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내주식	스마트베타	국내테마	해외주식	원자재 및 통화
KODEX 200 KODEX 코스닥150 KODEX 코스피	KODEX 200가치저변동 KODEX 고배당 KODEX 밸류Plus	KODEX 삼성그룹 KODEX 2차전자산업 KODEX 게임산업	KODEX 선진국 MSCI World KODEX 중국본토CSI300 KODEX 미국FANG플러스(H)	KODEX 골드선물(H) KODEX WTI원유선물(H) KODEX 미국달러선물

WWW.KODEX.COM에서 더 많은 상품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상품정보 확인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751호 (2019.2.28)

KODEX ETF는 주식거래와 똑같이 모든 증권사에서 직접 거래 가능하며, 증권사 랩(WRAP)이나 은행 신탁상품을 통해 간접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KODEX 거래방법 및 상품문의 ☎ 080-377-4777, www.KODEX.com

모두가 이기는 투자

삼성자산운용

“사람이 미래다” 人和·人材로 그룹 기틀 다진 ‘두산의 만형’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별세

평사원 입사 첫 업무는 ‘맥주병 씻기’... 34년간 그룹 이끌어 “일생 걸어도 후회 없는 직장” 연봉제·토요 격주 휴무 등 도입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3일 저녁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박 명예회장은 1932년 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6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해군에 지원 입대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상황임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통신병으로 비밀훈련을 받고 암호 취급 부서에 배치된 후 해군 함정을 타고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까지 복진하는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군 제대 후 박 명예회장은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귀국한 뒤 1960년 한국산업은행에 공채로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63년 동양맥주 평사원으로 두산그룹에 발을 들였다. 그룹 회장의 장남이었지만, 입사 후 첫 업무가 공장 청소와 맥주병 씻기였다. 1996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까지 34년간 두산그룹과 함께했다.
고인은 그 누구보다 ‘사람’을 중요시했다.
1981년 그룹 회장직에 오른 이후 ‘모든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1996년 8월 그룹 창업 100주년 축하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그룹

사원이 일생을 걸어도 후회 없는 직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재가 두산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라고 항상

강조했다. 또 인화에 앞서 ‘공평’이 전제되도록 노력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공평은 획일적 대우가 아닌 능력과 업적에

따라 신상필벌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는 선진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다. 회장 재임 시 국내 기업 처음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대단위 탐제를 시행했다. 1994년에는 직원들에게 유럽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했고, 1996년에는 토요 격주휴무 제도를 시작했다. 또 여름휴가와 별도의 리프레시 휴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두산그룹 출신 한 원로 경영인은 “바꾸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다.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제도가 등장하면 남들보다 먼저해보자고 하셨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과묵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내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모두 약속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죠”라고 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삼성家 만사위’ 조운해 前 고려병원 이사장 별세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선대 회장의 만사위인 조운해(사진) 전(前)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 이사장이 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한솔그룹 측이 4일 밝혔다. 향년 94세.
조 전 이사장은 1월 30일 별세한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남편이자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고인은 경북대 의대(옛 대구의전)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소아과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 근무를 시작으로 의료계에 종사했다.

1958년에는박준규 전 국회의장 소개로 이 고문과 결혼해 삼성가의 만사위가 됐다. 고인은 슬하에 조옥혁 한솔케미칼 회장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조옥형·조자형 씨 등 3남 2녀를 뒀다.
장례식장은 삼성서울병원이며, 발인은 6일 오전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명완저우 화웨이 CFO, 캐나다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美 신병 인도 착수하자 반격

명완저우(사진)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절차가 착수되자마자 반격에 나섰다.
명완저우 측은 캐나다 법무부와 연방 경찰청(RCMP) 소속 경찰관 1명, 국경관리요원 3명을 대상으로 밴쿠버 소재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런칭페이 화웨이 설립자의 장녀인 명완저우는 지난해 12월 1일 밴쿠버국제공항에서 멕시코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환승하는 도중 체포됐다. 명완저우 측은 그가 정식으로 체포되기 3시간 전에



당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과 심문,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캐나다 법무부가 명완저우에 대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절차 개시를 허용한 1일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으며 이날 미디어에 이 소식을 공개했다.
소장에 따르면 캐나다 관리들은 정

기적인 세관 검문검색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명완저우를 심문하고 그의 집과 전자제품들을 수색했으며 변호사와 다른 법적인 보호 수단을 취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 소송은 명완저우를 미국과 캐나다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명완저우는 밴쿠버 가택에서만 머물며 민간 경비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보석이 허용됐다.
미국 법무부는 명완저우를 대이란 제재 위반과 자국 은행 기만 혐의로 기소했으며 캐나다 측에 신병 인도를 요구한 상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1089명 선정

국세청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이재훈·서현진 씨는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수상자 등을 축하했다. 또 전국의 모든 모범납세 수상자 1089명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메시지와 누리집 게시용 알람창을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실납세자 등을 ‘1일 명예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남기(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희찬(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에 ‘고액 납세의 탑’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는 등 자체적으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한양대 의무부총장에 최호순 교수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1일자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최호순(사진) 교수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4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



국워싱턴대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의학연구실장, 소화기센터소장, 임상의학연구소장,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의과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보건대학원장에 한중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윤호주 교수,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에 유대현 교수, 한양대학교교제병원장에 김혁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100번째 ‘LG 의인상’ 화제서 이웃 구한 박명제 씨 등 3명

LG는 지난달 경남 김해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11명의 주민을 구조한 박명제(60·사진 오른쪽), 신봉철(52·왼쪽)씨와, 부산광역시 한 편의점에서 흥기를 든 강도를 제압한 성지훈(42)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5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정연승 특전사 상사에게 첫 번째 LG 의인상을 시상한 이래 10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
전기설비업을 하는 박명제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집 근처에서 강한 폭발음에 이어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박씨는 불길과 연기를 피해



2층 베란다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 1명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량 위로 올라가 자신의 어깨를 딛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왔다. 인근에서 타일시공사를 운영하는 신씨도 곧바로 화재현장으로 달려왔고, 이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2층에 고립돼 있던 주민 6명과 화상을 입고 계단에 쓰러져 있던 주민 1명을 구했다. 송영록 기자 syr@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국유재산심의관 김경희
-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항공안전정책관 김영국 ◇국장급 전보 △건축정책관 김상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박승기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김태형 △정보보호담당관 유신근 △주택정책과장 이명섭 △국토정보정책과장 한동민 △건설산업과장 박정수 △해외건설지원과장 이상현 △교통안전복지과장 윤영중 △간선도로과장 이정기 △도로투자지원과장 박병석 △도로운영과장 오수

부음

- ▲김병학 씨 별세, 김재우(강남플러스음향 대표)·재훈(기획재정부 국장·주 상하이총영사관 영사)·혜영 씨 부친상, 이선 씨 시부상, 이영주(삼성서울병원 부장) 씨 장인상 = 4일 오전 6시 10분, 삼성서울병

- 영 △민자철도팀장 나진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손경복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조세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박승기
- ◆세안금개발청 ◇국장급 전보 △개발사업국장 김상석 ◇과장급 전보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장 이준희
- ◆기상청 ◇4급 승진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박경진
-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정책교육국장 조영호(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규 선임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충열 ◇보직 변경

- △총괄사무이사 최희문 △사업본부장 박종원 △홍보실장 강승룡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상임이사 염종호
- ◆하이투자증권 ◇신규 보임(부서장) △양용인 경영기획팀장 △엄익수 전략운영팀장
- ◆휴온스그룹 ◇휴온스글로벌 △사장 김완섭 윤보영 △이사 고한석 △이사대우 김재현 ◇휴온스 △부사장 전규섭 △전무이사 김인섭 △사무이사 이재훈 오준교 △이사 송대근 박민철 △이사대우 조재민 이성은 이정세 김대식 ◇휴메디스 △이사 이지훈 △이사대우 하재석 ◇휴온스메디케어 △상무이사 안용성 ◇휴메나 △이사 황승현

- 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15
- ▲이옥순 씨 별세, 김지훈·희령·희은 씨 모친상, 김성우(롯데카드 채권관리부부장) 씨 장모상, 우혜진 씨 시모상 = 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 발인 5일, 장지 포천 천보묘원, 02-3010-2000

- ▲추은희(한국여성문인회 전 회장·펜클럽 한국회원) 씨 별세, 강원경·원진 씨 모친상, 송호근(포항공과대학교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씨 장모상 = 4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2-2227-7500

정일환의 Aim High



사회경제부장

3·1운동 100주년, 준비는 승리한다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 국뽕(國蓬)이 차오른다. 문프께서 3·1 만세운동 100년을 맞아 친일청산에 나서겠다고 하시니 마침내 일본 잔재에 종지부(終止符)를 찍을 날이 오나 보다. 일제에 빌붙어 동포들 억압해놓고 아닌 척 잘 먹고 잘 사는 친일파 후손들 당분간(とうぶん) 짜져 있어야. 준비는 승리하니까.

다음 칼럼에 쓰인 33개 민족대표 언행 가운데 3·1만세 운동 100주년에 가장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시오.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 국뽕(國蓬)이 차오른다. 문프께서 3·1 만세운동 100년을 맞아 친일청산에 나서겠다고 하시니 마침내 일본 잔재에 종지부(終止符)를 찍을 날이 오나 보다.
일제에 빌붙어 동포들 억압해놓고 아닌 척 잘 먹고 잘 사는 친일파 후손들 당분간(とうぶん) 짜져 있어야. 왔다갔다(行ったり来たり)하던 옛날과 문프는 클래스부터 다른지라 뽕(蓬)나면 곧 죽음이야.
연휴엔 역시 늦잠 자고 밀린 드라마 몰아보기가 수순(てしゅん)이니 만땅(まんたん) 채운 포인트로 결제하고 스카이크슬 정중행. 요즘은 확실히 공중파(くうちゅう)보다 종편 드라마가 훨씬 재밌어.
헬조선 닝겐(にんげん·사람)들은 대체

서울대 의대가 뭐라고 저 난리들인지. 명문대 안 나오면 인생에 기스(きず)라도 나는 건가. 배운 건 없어도 자수성가한 기라성(きらぼし)같은 인물들 차고 넘치는구먼.
TV도 하루종일 보니 완전 노가다(どかた)네. 쇼핑물 금주(こんしゅう)의 대박 상품이나 둘러봐야지. 데상트(설립자 石本他家男·이시모토 다케오) 할인율(わりびき) 80%에 폼데가르송(설립자 川久保玲·가와쿠보 레이)도 땡처리 세일 중이니 어머 이걸 꼭 사야 해.
이월상품이라 와꾸(わく)는 좀 팔려도 패션은 역시 뽕까번쩍(ぴかばん쩍) 프랑스 지.곤색(こん色)이 나올까? 소라색(そら色)이 나올까? 고민하면 완판이니 얼른 겐토(겟·손에 넣기). 모름지기 가오(かお·인물)가 육체를 지배하는 법. 땡땡이(てんでん) 무늬로 살 걸 그랬나? 민무늬 옷도리는 생각보다 간지(感じ·느낌)가 별로.

쇼핑도 끝났으니 여유롭게 요즘 대세 이치방시보리(一番絞り) 한 잔을 땀! 기린 맥주가 "먹어서 응원하자(食べて応援しよう)" 한다지만 설마 후쿠시마 농산물을 쓰기가 했겠어?
짜라시(ちらし)에 '먹어서 응원하자 참여 기업 리스트'가 돌던데, 그거 나만 불편해? 세븐일레븐, 웨미리마트 같은 편의점 도시락과 주먹밥에다 KFC, 맥도날드, 서브웨이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말할 것도 없고 스키야(すき家), 모스버거(モスバーガー), 요시노야(よしのや) 같은 체인 음식점들이 전부 먹어서 응원하자에 참가했다는 게 말이 돼?
게다가 아사히맥주(アサヒビール), 에자키글리코(エジカグリコ), meiji, 곤약젤리 같은 국민 먹거리 수준의 식품회사들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쓴다면 일본인들이 가만있겠어?
다카시마야(大阪タカシマヤ), 미쓰코시(みつこし), 이세탄(いせたん) 같은 고

급 백화점 이름까지 있던데 역시도 풍년일세. 더구나 전범기업 드립 치며 일본 소비 반대하는 목소리 1도 납득(なっとく) 안됨. 과거사는 과거사고 소비자 선택권은 유도리(ゆとり)가 있어야지.
미세먼지 잔뜩인 요즘엔 밖에 나가느니 앓싸리(あっさり) 잉여(じょうよ)처럼 이불 속에 낫지. 밥은 배달시키고 필요한 건 택배(たくはい)로 받으면 되니 저녁엔 짬뽕(ちゃんぽん)이나 시켜먹고 모찌(もち)로 밤잠 해결.
꿀물 갈던 연휴가 끝났으니 출근하면 또 고참(こさん)에게 탈탈 털리겠지. 면상에 사표를 던져도 인수인계(ひきつぐ)해놓고 나가라며 철벽 칠 냉동인간 같으니. 직장인 대다수(だいたすう)가 나랑 같은 마음일 텐데 나만 멘탈이 약한 거야 뭐야?
다들 담달 카드값 생각해서 일단 무대뽀(むてっぽう)로 참는 거겠지. 준비는 승리하니까. whan@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한국임팩트금융 대표

사회문제 해결 위한 금융혁신 'SIB' 정착되려면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심지어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소비심리와 기업 체감심리도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사회문제는 더 심각하다.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라고 하는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빈곤율, 고용률 등 사회문제의 면에서는 세계 최악의 고등대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 신뢰 부재, 상호 혐오, 갈등과 격차가 인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 온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 더 시급히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힘'이 아닌 '짐'이라는 재

앙을 넘겨줄 수도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연 47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정부 예산을 매년 늘려 보지만 한계가 있다. 사회문제의 내용도 문제다. 사회문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이제는 전통적인 복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사회문제가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과제들이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해결방식도 금융 경영 등의 시장적인 방법들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선순환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투자'에 재원을 유통하는 임팩트 금융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임팩트금융의 첨단 상품이다. SIB는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정 기간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약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정부가 투자 원금과 인센티브로 보상해주는 사업방식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융

이 결합된 형태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짜입세 있게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0년 영국 피더버러의 사설 교도소에서 재범률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된 SIB는 이제 세계로 확산되어 120개 이상의 사례를 만들어 내며 사회문제를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생활아동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SIB를 진행 중이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청소년 재범 예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SIB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예산제도의 정비나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정부의 인식 개선이다. SIB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새로운 사업방식에 익숙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SIB는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정확

한 평가를 통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관료적 접근방식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식과 단기적 예산체계를 넘어서야 한다.
SIB에는 정부, 운영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투자자, 평가기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관 협치를 이루어 간다. 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뿌리째 흔들리는 사회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과 혁신이다. 모두를 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품고 가는 세상을 만드는 공생의 경제 사회질서를 만들고, 이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금융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저우언라이(周恩來) 명언
"죽어서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자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정치가. 41년간 마오쩌둥(毛澤東)을 보좌한 중국공산당의 2인자. 27년간 총리였지만, 마오 주석에게 보고할 땐 침상 옆에 꿇어앉아야 했고, 주석의 하타이 떨어지지 않아 방광암 수술을 2년간이나 미루어야 했다. 그는 "다 죽어가는 나뭇잎은 돌보지 말고 다른 아픈 동지들을 돌보시오"라는 유언을 남기며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1인자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이 그의 생일. 1898-1976.
☆ 고사성어 / 인자무적(仁者無敵)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 원전은 맹자(孟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편. 혜왕이 패전의 치욕을 씻는 방안을 묻자 맹자가 "인자한 정치를 해서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줄이며,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장정들에게는 효성과 우애와 충성과 신용을 가르쳐 부형과 윗사람을 섬기게 한다면, 몽둥이를 들고서도 진(秦)·초(楚)나라의 견고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한 것에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오픈북 경영(open-book management)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정보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여 경영자와 같은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부분적인 이익보다는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경영혁신 방안이다. 기업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우리말 유래 / 싸구려
장사꾼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물건값이 싸다는 뜻으로 '싸구려'라고 외치던 말이 그대로 값 싸고 질 낮은 상품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 유머 / 위문편지 답장
병사에게 애인이 파혼하자며 사진을 돌려 달라는 편지가 왔다. 내무반에 굴러다니는 사진들을 모두 모아 답장을 보냈다. "니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유감이다. 니 사진은 가지고 다른 사진은 반환해라."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이주혜 자본시장2부/winjh@

주주권 행사토록 전자투표제 활성화해야

3월이 시작됐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즌이다. 올해 주총은 유난히 이슈가 많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 구축에 나선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주총에서 2조5000억 원의 배당금을 제안하겠다고 밝히고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SK그룹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다. 삼성전자와 LG그룹은 신규 이사를 선임한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은 단연 한진그룹이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에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 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KCGI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를 압박하고 있으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는 쉽지 않다. 같

은 날 한꺼번에 주총을 여는 기업이 많고 직접 참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어 '무늬만 주총'이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다.
주주가 제 몫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집중 개최를 피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이다.
최근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0%에 달했던 주총 집중도를 일본 수준인 48.5%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주총 집중을 피하도록 유도하

는 자율 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슈퍼 주총일'을 피해 20일 주총을 개최하기로 했다. LG도 집중을 피한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반가운 변화지만 더 많은 기업이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해 주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주주를 귀찮은 존재나 경영의 장애물로 여겨왔다.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의 뜻대로 기업을 움직였다. 이들을 위해 기업의 이익이나 가치가 훼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투자를 받은 만큼 주주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
주주 자신도 변해야 한다.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투명한 기업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주인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레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대표전화	(02)799-2600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팩스	(02)799-1003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보수도 외면한 한국당에 없는 세 가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실망 그 자체였다. 적어도 합리적 보수세력엔 절망을 안겼다. 집권 가능성을 보여준 대안정당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전대를 통해 지지율을 10% 정도 올리는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지층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한국당 전대 과정을 보면서 여당이 100년 집권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어불성설이지만 지금의 제1야당 한국당만 놓고 보면 그리 틀린 얘기도 아니다. 한국당은 현재 집권 가능성이 없다. 집권을 위한 조건을 하나도 갖춘 게 없다. 진정한 보수 가치의 공유는 물론 대안세력으로서의 비전과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담아낼 정체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득권에 매달려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야당 이미지가 한국당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합리적 노선 부재는 당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이미 심판이 끝난 대통령 탄핵과 5·18 등 과거 이슈를 놓고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에 국민은 좌절했다. 촛불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진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정당성 시비는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일부 의원은 5·18을 폄하하는 시대착오적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지도부는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사태를 키웠다. 전대는 극우 색깔의 '태극기부대'에 휘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에도 합리적 목소리는 설 자리가 없었다.

집권할 대안정당으로서의 작은 희망도 보여주지 못했다. '다함께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헛구호에 불과했다. 미래로 가기 위한 어떤 국가 비전도 찾아볼 수 없

데스크칼럼

이재창

국장대우 정치경제부장



다. 당의 비전도 마찬가지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한국당은 야당이 된 뒤 줄곧 그랬다. 현 정부의 각종 포퓰리즘 드라이브에 반대 목소리만 높였을 뿐 국민이 공감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당 이미지가 굳어진 이유다. 그런 구시대 이미지를 만회할 기회가 바로 이번 전대였지만, '과거 이전투구'로 날려버렸다. 비전과 비판적인 대안을 가진 개혁 보수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민심과 정반대로 가니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없다. "한국당에 정권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정적 인식을 다수 국민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한국당이 과연 보수당의 가치를 제대로 공유는 하는지 묻고 싶다. 정치 발전 등 합리적 개혁을 거부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는 걸 보수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보수의 기본 가치는 자유다. 자유시장경제는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한다. 자유 경쟁 원리가 모든 분야에서 작동케 하는 게 보수다. 한국당이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 포퓰리즘을 놓고 진보세력과 경쟁을 벌이는 장면은 보수의 정체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벌개혁과 복지 포퓰리즘은 평등원리를 앞세운 진보의 정책이다. 보수당의 길이

아닌데도 표 논리로 접근한다. 정체성을 잃은 정치세력은 정당이 아니라 친목 모임이다.

한국당 전대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을 끌어안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 확인해 준 자리였다. 여론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최근 한국당 지지율은 그나마 높게 나온 게 20% 후반대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자 당에선 "내년 총선은 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과연 그럴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45% 정도다. 한때 무너졌던 보수층이 어느 정도 복원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지율은 40% 안팎이다. 적어도 유권자 45%에서 60%는 중도를 포함한 비여권이라는 의미다. 통상 보수층이 35~40% 정도라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한국당 지지율은 중도는커녕 합리적 보수의 지지조차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총선은 5% 게임이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한국당은 내년 총선서 필패다. 1년 전 지방선거의 'TK당 악몽'이 재연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게 현실이다. 2016년 총선 패배 후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필자도 'TK자민련'을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를 무시한 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TK자민련이 현실화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게 더 큰 위기다. 지금 한국당이 그렇다. 이대로라면 합리적 보수와 중도는 한국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leejc@

시설

수출 비상, 단기 대책으로 위기 못넘는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비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급격히 하락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쪼그라들어 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39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줄었다. 작년 12월(-1.3%), 올해 1월(-5.8%)에 이어 감소폭이 더 커졌다.

그동안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수출액이 2월 67억7300만 달러에 그쳐 작년 9월 124억3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5개월째 감소세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1%로 떨어졌다. 작년 반도체의 비중은 20.9%에 달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요 둔화,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뿐이 아니다. 13대 주력 상품 가운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을 제외한 모든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도 줄곧 뒷걸음질이다. 2월 수출액은 95억 2000만 달러로, 17.4% 줄어 4개월째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중국 경기 둔화에 제조업 자금능력이 높아져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한 까닭이다. 주력상품과 시장 모두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출 부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연간 수출이 2016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할 것이라 비관적 분석도 나온다.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내놓았다. 수출업체에 대한 대출·보증을 위한 무역금융을 작년보다 15조3000억 원 늘린 235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예산 3528억 원을 상반기 중 60% 집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헬스, 2차전지, 한류·생활소비재,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등 새로운 유망품목에 대한 세부 육성 방안도 곧 마련키로 했다.

일단 돈을 풀어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긴급 처방으로 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수출 위기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력 상품의 수요 부진 및 가격 하락, 중국과 유럽, 아세안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자금 지원 등 단기 대책의 한계가 분명한 이유다. 반도체 시황 악화나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 요인이 단기 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쇠퇴하는데, 공백을 메울 새로운 수출 주도 산업이 부재(不在)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로 신시장 개척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기업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돌파구를 넓히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경제부 차장

해묵은 '문화재 관람료 갈등' 언제까지

학사를 통과하는데 주차비 4000원과 입장료를 포함하면 1인 기준 7000원을 내야 한다. 어쩌다 가면 모르겠지만, A 국장처럼 자주 가는 등산객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문제는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는데 왜 돈을 내는 것이다. 3000원은 뭘까. 동학사에 들어가기 위해 내는 입장료 3000원은 문화재 관람료다. 일반적인 코스로 계룡산 정상에 가려면 동학사를 통과해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낸다. 가끔 등산을 하는데 동학사에서 돈을 왜 받느냐고 큰소리가 나기도 한다. 2010년 74명의 시민이 천은사를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 부당 징수 관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이나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천은사를 비롯해 27곳 사찰에서 여전히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 등산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 불교계는 정부가 2007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사찰과 국민 간의 불신을 제공했

다고 비판하지만, 불교계도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걷은 문화재 관람료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처는 사찰집행(53%), 종단분담금(12%), 교육기관 특별회계(5%) 등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 정부가 따로 문화재보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슷한 예로 명동성당에 들어갈 때 성당 보수에 쓴다고 돈을 걷지는 않는다. 명동성당은 1898년에 건립된 유서 깊은 유적지로 사적 제258호에 지정돼 있다. 기자가 신도증이 있는 신도는 아니지만 절을 즐겨 찾고 삼배도 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도 아닌 문화재 관람료로 불교계가 육을 먹는 상황이 안타깝다.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꽃 피는 봄이 오면 많은 국민이 다시 등산화를 짊어지고 산을 찾을 것이다. 정부와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란다. soqood@



'날쌔다'와 '김쌔다'

때가 지나 버려 기회를 놓친 상태를 말할 때 흔히 '날쌔다'는 표현을 한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영화를 촬영하지만 당연히 낮에 찍어야 할 장면도 있고 밤에 찍어야 할 장면도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이루어지는 일이 밤에 이루어지는 일보다 많을 뿐더러, 실령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조명을 밝히면 언제라도 촬영할 수 있지만 밤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밤에만 촬영해야 한다. 이처럼 밤 시간을 이용하여 촬영해야 하는 장면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어느새 날이 밝아 버리면 아무리 연기와 촬영에 몰입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하는 말이 "날쌔다"였다고 한다. 이것이 나중에 영화뿐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적용되어 "때가 지나 버려 기회를 놓친 상태"를 이르는 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흥이 깨지거나 맥이 빠져 싱거워지거나 실망하여 의욕이 없어지는 경우를 흔히

'김쌔다'는 말로 표현한다. 언제부터인가 몇 사람이 사용하던 말이 사회에 퍼짐으로써 정착한 하나의 속어이다. 압박밥술이나 전기밥술은 물론 옛날에 장작불로 짓던 가마솥 밥도 채 뜬이 들기 전에 솥뚜껑을 열어서 김이 다 새어 버리면 밥이 설익어서 먹을 수 없게 되거나 먹더라도 먹기가 매우 거북한 상태가 된다. 이로부터 상황이 매우 나빠지거나 아주 못쓰게 된 경우를 일러 '김쌔다'고 하게 되었다.

양력에 이어 음력으로 맞은 또 한 번의 새해도 이제 그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방심하여 새해를 맞으며 했던 새로운 각오를 잠시 망각했다면 음력 정월이 가기 전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다. 게으르고 무질제한 생활로 본래 계획했던 일들이 김새거나 날 새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잘 챙겨 실천해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99.999%
이것이 일반 청정과
초순도 청정의 차이

삼성 무풍큐브,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필터로
무결점에 가까운 청정을 실현하다

초순도 공기청정기

삼성 무풍큐브



"미세먼지 99.999% 제거"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의 0.3μm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시험입자: 0.3μmKCl 입자, 풍속: 1.0 m/s). 국제인증기관 Intertek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미국냉공조학회(ASHRAE) 정의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함(무풍청정은 무풍모드에서 작동됩니다)